

무실동 이야기

무실동 이야기

무실동 이야기

초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30일

펴낸곳 | 무실동행정복지센터
펴낸이 | 무실동마을기록위원회
기획·제작 | (주)도서출판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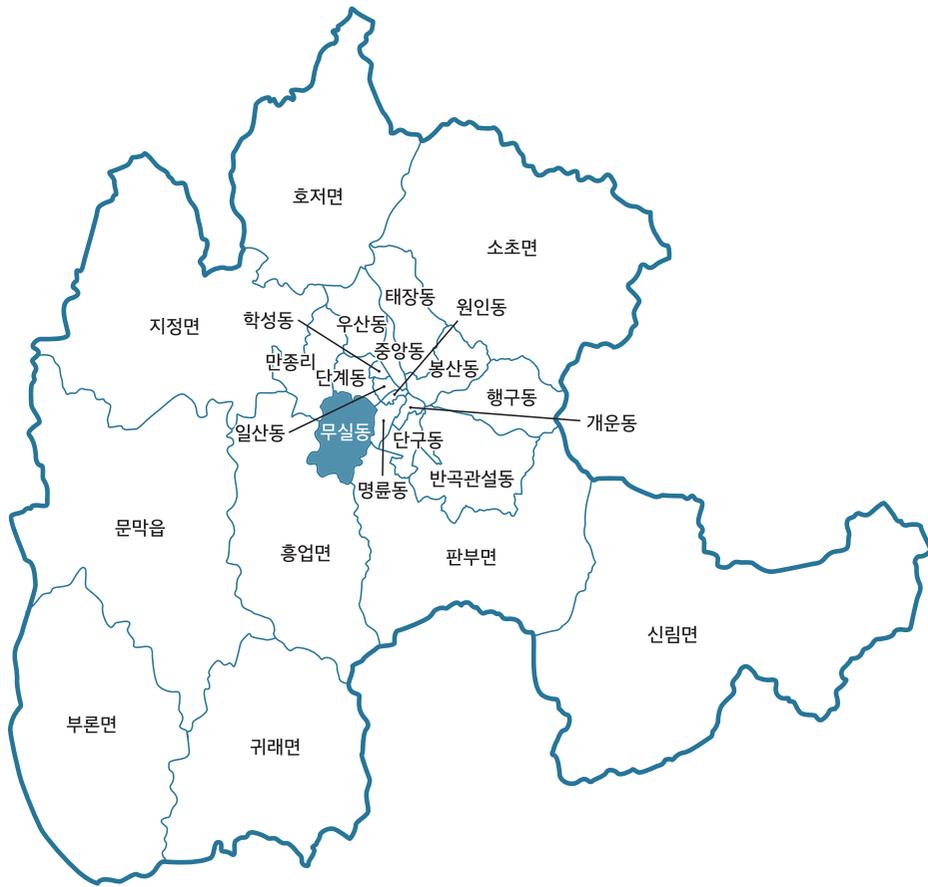
무실동마을기록위원회

위원장 | 이태균
고문 | 서병기
위원 | 김현숙, 서정덕, 신주원, 우순자, 윤일호, 윤창희, 차영환, 최형순

ISBN 979-11-973090-2-1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주)도서출판 이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실동은 원래 원주군 관제면이었는데, 1914년에 이뤄진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남여산, 마장동, 은행정, 행가리동, 양지촌, 이촌, 만다골·송삼동이 병합되면서 무실리라 이름 지어지고 금물산면에 편입됐다. 1937년 원주면이 원주읍으로 승격하면서 원성군 홍업면 무실리가되었으나 1973년 원주시가 확장되면서 원주시 무실동으로 편입됐다. 1999년 1월 1일 정부의 과소동 통폐합 방침에 따라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단계동 일부가 편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차례

마을 사용법 8

- 10 숫자로 읽는 우리 마을
- 18 무실동 옛길
- 20 지명유래
- 29 도로명 의미
- 31 연도별로 보는 무실동

마을에서 만난 사람 38

- 40 무실동의 중심가 본동
- 46 행정의 중심 만대마을
- 52 마을 경조사 가족 일처럼 했던 마을
- 66 송삼마을 오래된 집
- 70 원주 최초 작목반 '만대시설채소작목반'
- 80 대동계와 청년회
- 84 무실동 최고령 원제하 할머니
- 90 무실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우리 마을
- 100 네 번 이전한 무실동행정복지센터
- 110 행정 중심의 마을이 되다 '원주시청 이전'
- 118 전쟁으로 부모 잃은 아이 돌보던 심향영육아원
- 124 40년 역사 함께한 원주교도소
- 134 세종대왕 모신 곳
- 138 무실택지 개발
- 146 원주 최초 대형할인매장 이마트 원주점 개점

추억의 무실동 150

무실동마을기록위원회 176

함께한 사람 180





마을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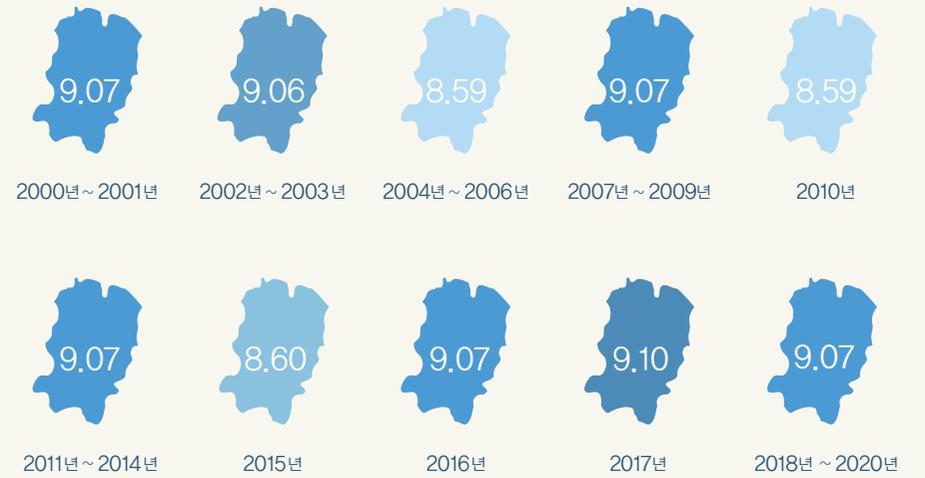
藏 禮紀四九一年 陰二月十四日 戊午生壬子丙申時

숫자로 읽는 우리 마을

통/반 (단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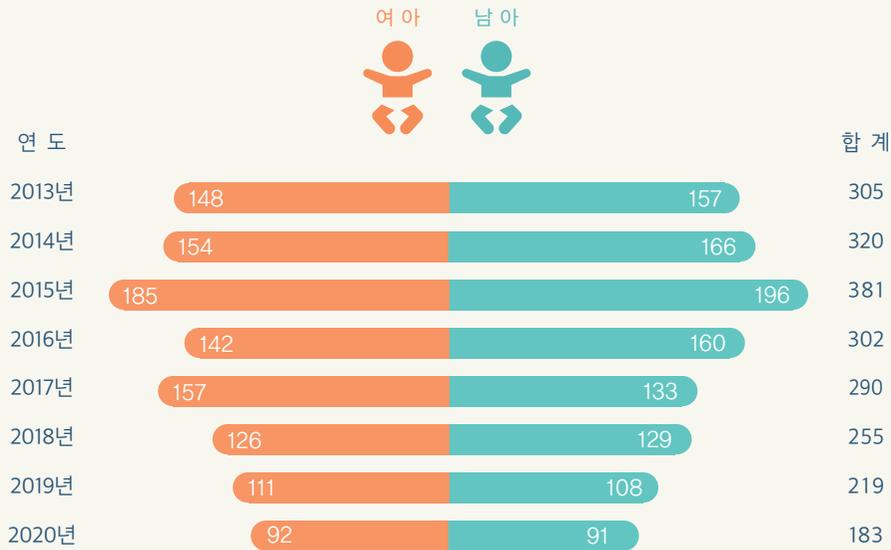


면적 변화 (단위:km²)



출생 현황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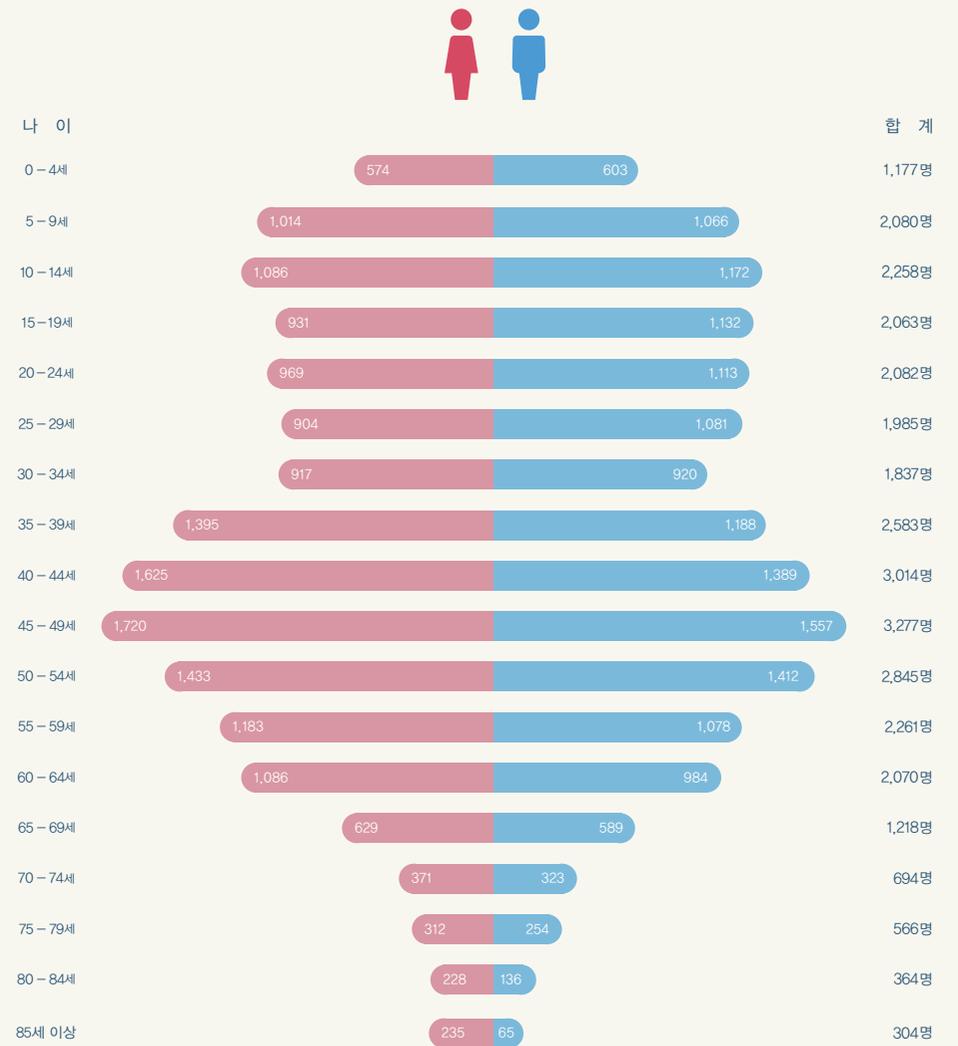
인구 현황

(단위:명)



연령별 인구 통계

(단위:명)
2020년



초등학교 현황 2020년

1) 무실초등학교

학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학급 수	3	4	4	4	4	4	1	24
학생 수	73	83	107	101	89	103	7	563

2) 만대초등학교

학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학급수	5	5	5	6	6	6	1	34
학생 수	124	121	131	146	152	135	10	819

3) 솔샘초등학교

학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학급수	6	6	6	7	8	6	1	40
학생 수	136	140	160	169	193	162	7	967

4) 삼육초등학교

학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학급수	3	3	3	3	3	3	0	18
학생 수	92	90	90	96	96	96	0	560

중·고등학교 현황 2020년

1) 대성중학교

학년	1	2	3	계
학급 수	7	7	7	21
학생 수	210	201	210	621

2) 삼육중학교

학년	1	2	3	계
학급 수	4	4	4	12
학생 수	103	109	117	329

3) 삼육고등학교

학년	1	2	3	계
학급 수	4	4	4	12
학생 수	108	116	109	333

4) 대성고등학교

학년	1	2	3	계
학급 수	10	10	10	30
학생 수	273	280	276	829

자료 원주시교육지원청

● 행정구역 및 자연마을 현황

행정조직		세대수	인구수	면적					자연마을	비고
통수	반수			계	대지	농지	임야	기타		
33	321	13,757	32,765	9.07km ²	0.67	3.17	4.34	0.89	9	도시계획 6.83km ²

행정동	법정동	행정구역		자연마을
		통	반	
무실동	무실동	1	4	본동, 양지들
		2	5	만대, 송삼
		3	4	이촌, 행가리, 합포원, 양지말
		4	4	마장, 은행정, 도롱골
		5	10	무실주공4단지아파트
		6	11	무실주공4단지아파트
		7	12	무실주공1단지아파트
		8	11	무실주공1단지아파트
		9	13	무실주공3단지아파트
		10	13	무실주공3단지아파트
		11	12	요진보네르카운티
		12	11	요진보네르카운티
	단계동	13	6	이화마을
		14	5	
		15	6	
		16	5	
		17	7	
		18	6	
		19	16	
	무실동	20	4	무신택지
		21	20	뜨란채아파트
		22	12	원주무실5주공아파트
		23	16	무실이편한세상
		24	16	원주무실7주공아파트
		25	8	만대골
		26	11	원주무실6단지 휴먼시아
		27	10	원주무실8단지 내 아파트
		28	10	원주무실8단지 내 아파트
		29	10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30	9	무실세영리첼1차아파트
		31	16	무실우미린
		32	14	무실세영리첼2차아파트
		33	4	솔우물
1	2	33	321	

● 자생단체

계	주민자치 위원회	통장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자유 총연맹	자율 방범대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체육회	청·장년회
293	30	33	9	11	13	35	55	27	4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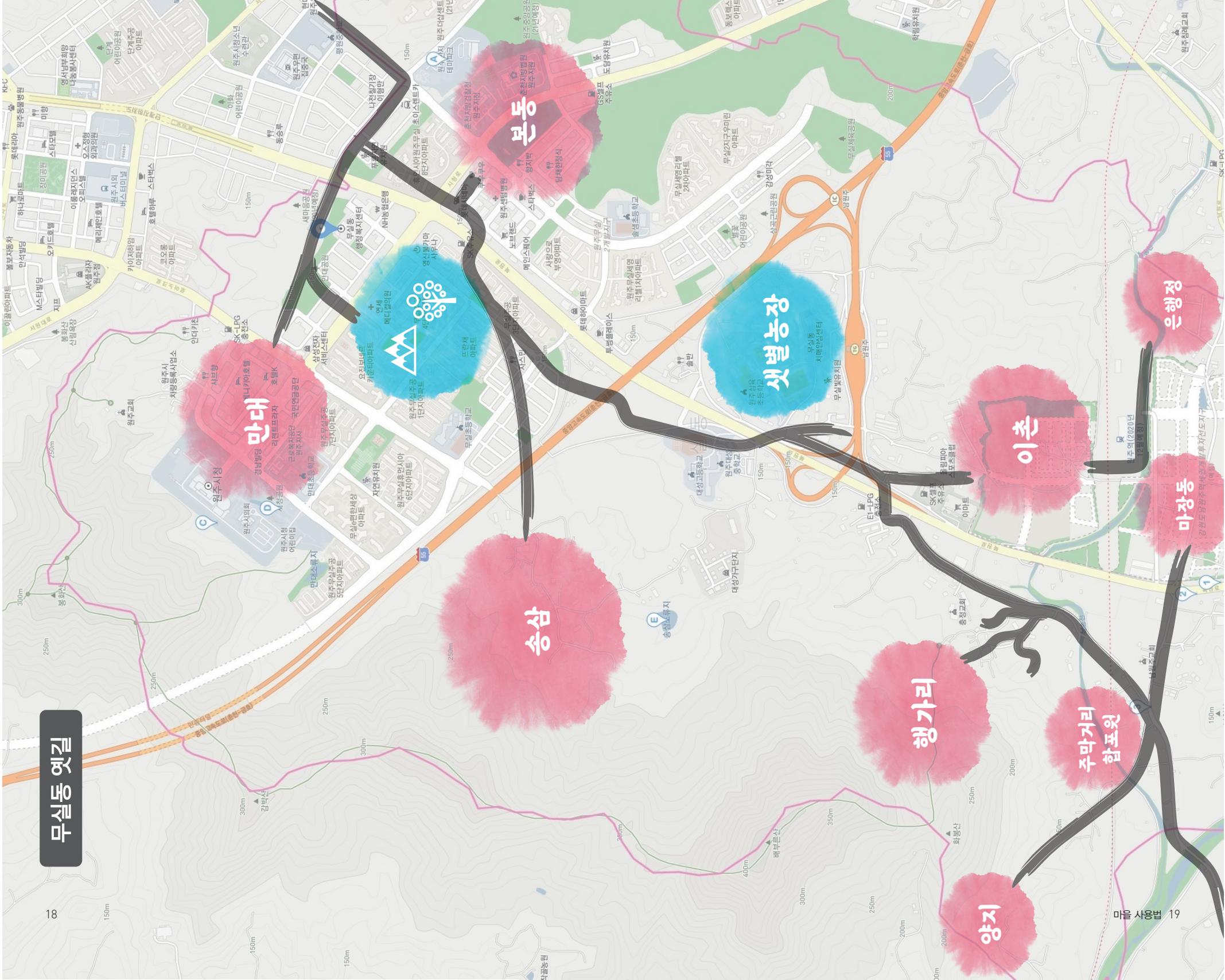
● 아파트

아파트명	준공일	세대수	도로명 주소	해당 통
15개소		9,875		
코오롱아파트	97.04	503	로아노크로 15	19통
원주무실주공4단지아파트	01.11	733	시청로 88	5,6통
원주무실주공3단지아파트	03.04	936	시청로 92	9,10통
원주무실주공1단지아파트	04.07	720	시청로 68	7,8통
요진보네르카운티	04.12	849	시청로 64	11,12통
뜨란채아파트	06.08	563	시청로 90	21통
원주무실5주공아파트	08.12	513	만대로 96	22통
원주무실이편한세상아파트	09.02	592	만대로 89	23통
원주무실7주공아파트	09.05	606	시청로 40	24통
원주무실6단지 휴먼시아	10.07	680	만대로 119	26통
원주무실8단지 내 아파트	10.10	870	무실로 300	27,28통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12.07	649	무실로 380	29통
무실세영리첼1차아파트	14.06	482	무실로 382	30통
무실우미린아파트	14.10	653	무실로 455	31통
무실세영리첼2차아파트	15.04	526	무실로 415	32통

● 유관기관

KEB하나은행 원주금융센터지점,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원주시청출장소, 건강보험공단 원주형성지사,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대원실험 본점, 만대초등학교, 무실초등학교, 원주밖을산협 무실지점, 솔샘초등학교, SH수협은행 원주금융센터, 신원주새마을금고 남원주점, 신한은행 남원주지점,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원주교도소, 원주농협 무실로지점, 원주농협 시청로지점, 원주단계동우체국, 원주대성고등학교, 원주대성중학교, 원주삼육고등학교, 원주삼육중학교, 원주삼육초등학교, 원주우리새마을금고 무실지점, 원주우편집중국, 평원중학교,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지사

무실동 옛길





<광여도 원주목,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무실동은 봉화산(해발320m), 백운산(해발1,087m), 포복산(배부
른산 해발419m)으로 둘러싸여 있고 낮은 산과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택지와 함께 신시가지가 조성됐다. 가까운 지역으로는 명
륜동, 단계동, 흥업면의 흥업리, 사제리, 호저면의 만종리, 판부
면의 서곡리가 있다.

[연혁]

원주군 판제면板梯面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남여산南呂山·마장동馬場洞·은행정銀杏亭·행가리동行街里洞·
양지촌陽地村·이촌泥村·만다골·송삼동松三洞을 병합하여 무실리

라 이름 지어진 뒤 금물산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7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성군 흥업면 무실리에서 원주시로 편입되어 무실동이라 불렀다.

무실동은 크고 좋은 우물이 있어 무실·무리실·삼리^{三里} 등으로 불렸다고 한다. 또한 배·사과 등 과일이 풍부하여 무실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무실은 물이 나는, 물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무리실 물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으로 ‘물실, 무리실’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다. 무실동의 중심 마을이며 마을 안에 ‘양지말’, ‘음지말’, ‘웃말’이 있었다. 지금은 이화마을사거리에서 시청사거리, 법조사거리에 이르는 지역이다. 현재 방울꽃어린이공원과 푸른자연유치원, 원주무실LH8단지아파트와 롯데시네마 건물이 있다. ‘무실’, ‘무실동’이라고도 한다.

이화마을 새로 마을을 조성하면서 마을 이름을 이화마을이라 했다. 옛 뜻내지역, 구 원주시립도서관 서쪽, 원주교도소 동쪽의 마을을 말한다.

남여산 지형이 남여^{藍輿}(가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남여산이라고 한다. 마장동과 오목개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무실동 4통

지역에 있다.

능골 현재 남원주가구단지 뒤편에 있으며 행가리동에 있는 마을이다. 능골마을에는 오래전에 큰 능이 있었다고 한다.



마장동 강릉원주대학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말을 놓아 먹이를 먹이던 곳이어서 마장동이라고 불렀다.

만대 오래전에는 터가 넓고 1만 호의 집들이 모여 거대한 마을을 형성했다고 해서 만대라고 불렀다. 서쪽에 봉화산과 감악산이 있어 해가 일찍 저물었으며 산줄기에 늦은재라는 고개가 있다. 현재 원주시청이 들어서 있으며 마을 안에 ‘공말’, ‘건너담’이 있었다. ‘만다’, ‘만다동’, ‘만대동’이라고도 한다.

음지말 시청사거리 남쪽, 법조사거리 남서쪽의 상가 지역에 있었던 마을이다. 다른 말로는 ‘음달담’, ‘음촌’이라고도 불렀다. 무실저수지 서쪽 아래, 양지말들 남동쪽에 있었다.

웃말 무실천이 흐르는 무리실 본동과 음지말에 비하여 동쪽 높은 곳에 있으므로 웃말이라 하였다.

무리실 마을 중 봉바우골 입구의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지금은 법조사거리를 중심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과 롯데시네마 원주무실점이 있다.

본부락 무실동 1통 지역이다. 현재는 대부분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북원로, 시청로 등 도로로 편입된 상태이다.



송삼 남원주IC 서쪽, 대성중고등학교와 대성가구단지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며 뒤편 배부른산에 소나무가 울창했다고 해서 송삼마을이라고 부른다. 마을 안에 ‘웃담’, ‘아랫담’, ‘넘어담’, ‘토돈네담’, ‘아랫말’, ‘중간담’ 등이 있다. ‘소삼’이라고도 한다.



합포원 물줄기가 합쳐지기 때문에 합포원이라고 한다. 이 마을은 판부면 서곡리 외남송에서 내려오는 ‘서곡천’에 홍업면 매지리에서 내려온 ‘매지천’이 남여산 앞에서 합류하고 거기에 다시 판부면 서곡리 내남송에서 흘러 내려오는 ‘남송천’이 합류하는 곳이다.

아래주막거리 합포원 마을 중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위에 윗주막거리가 있었다. 옛날 이곳에는 주막이 있었다.

양지말 현재 무실동행정복지센터와 NH농협은행이 있는 마을이며 햇빛이 잘 드는 양지쪽에 있어서 양지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양지말’이라고도 했다.

새말 박석고개 남서쪽, 송삼마을 중간담 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삼육초등학교 서쪽에 있다.

샘고개 샘고개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마트 원주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며 현재 원주 가구광장 할인마트가 들어서 있다.

솔우물 현재 세영리첼1차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에 있었던 마을이다. ‘소로 물’, ‘소르물’, ‘솔음물’이라고도 한다. 새로 들어선 ‘솔샘초등학교’ 학교명에 마을 이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은행정 마을 중앙에 수령이 350년가량 된 두 그루의 큰 암수은행나무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마장동 북쪽, 은행정 정수지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며 현재 거장아파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전해지는 말로는 은행나무는 판부면 서곡리 용소골의 서곡대사가 꽃아 놓은 은행나무 지팡이에서 잎이 피어 현재에 이른다고 한다.

진억이 이마트 원주점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며 ‘지니기’라고도 불린다. 진억이라는 지명은 땅이 매우 질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 마을 앞에 중앙선 철로가 건설되고 있다.

행가리 마을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 행가리라고 부른다. 옛날에 양반이 많이 살고 주민들의 행실이 발라 모범이 되므로 행가리行街里, 行佳里라 하였다고도 한다. 효자문과 열녀문이 길가에 서 있었다고 한다.

마을 안에 ‘능골’, ‘능너메’, ‘망태골’, ‘배부래이’, ‘초상거리’, ‘사태 밑에’ 등의 작은 마을들이 있다. ‘행가리동’이라고도 한다.

독바위 새말 건너편에 있으며 지형이 마치 독을 올려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밤골 무실 1통 지역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며 밤나무가 많아서 밤골이라 한다.

배부른산 무실동과 흥업면 경계에 우뚝 솟아 있는 높이 419m의 산을 말하며 포복산 胞腹山·식악산食岳山·배부릉산 이라고도 한다. 멀리서 바라봤



을 때 임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배부른산’이라고 했다고도 하고, 원주 지방에 물이 찻을 때 문막 쪽에 있는 배를 이 산에서 불렀기 때문에 ‘배를 부른 산’ 혹은 ‘배부른산’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긴동골 무실동 2통 1반 지역으로 일심농장 서남쪽에 있다. 골이 길어서 긴동골이라 한다.

병풍바위 만대마을 서북쪽에 있는 바위이며 병풍처럼 생겨서 병풍바위라 한다.

부영이바위 샘골에 있는 바위이며 봉바위라고도 불린다. 밤에 부영이가 내려와서 많이 울었다고 하여 부영이바위라 한다.

비녀바위 합포원 동북쪽에 있으며 바위가 비녀처럼 생겨서 ‘비녀바위’라고 했다고도 하며, 옛날 이 바위 위 느티나무에서 그네를 뛰던 처녀의 비녀가 빠져서 ‘비녀바위’라고 했다고도 한다.

신선바우 배부른산 정상에 있는 바위들을 가리킨다. 신선들이 놀았던 곳이라 하여 신선바우라 한다.

쌈고개 이마트 원주점 뒤쪽 구릉에 있는 고개이며 이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이용됐다. 고개에 쌈이 있어서 쌈고개라 했다.

서낭당고개 원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개바위 지금의 고려원 정문 앞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마을에 살던 사람이 술을 마시고 가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불이 나서 불에 탈 위험에 처하자 개가 자기 몸에 물을 묻혀 와서 불을 껐다.

자료 <원주지명총람. 원주시역사박물관. 2019>



도로명 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를 활용해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 층, 호)로 표기한다.

도로명은 각 지역의 유래나 특징을 살려 지은 이름이다. 무실동의 도로명 주소를 알아본다.

능라동길	행거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능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둔전길	소식을 전해주는 고개라는 뜻의 소식고개 이름을 반영했다.
로아노크로	원주의 자매도시인 로아노크시의 시명을 반영
마장길	옛날에 말을 놓아 먹이던 곳이라 하는 유래에서 반영했다.
만대공원길	인근의 만대공원의 이름 반영
만대로	1만 호의 집들이 모여 거대한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라는 뜻이다.

무실로	행정구역명과 과거부터 사용해 온 도로명을 반영
무실밤골길	예부터 밤나무가 많아 붙여진 마을 이름 반영
북원로	통일신라시대 명칭인 북원경을 활용해 붙인 지명
솔우물길	소로물, 소르물 등으로 불리운 마을지명 반영
송삼길	소나무가 많아 송삼이라 불린 유래 반영
시청로	시청으로 통하는 도로라는 의미
은행정길	큰 은행나무가 있어 붙여진 마을 이름 반영
이리실길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난을 이리저리 피했다는 뜻의 마을 이름 반영
이화길	과거부터 불려온 마을 이름 반영
지니기길	땅이 매우 질어서 붙여진 진억이 마을 이름을 반영했다.
행가리길	마을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 지어진 행가리 마을 이름을 반영했다.



무실동은 배·복숭아 과수원, 논과 밭이 많았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1979년 원주교도소가 들어선 후에는 교도소가 무실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었다. 그러다 1995년 무실1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2007년 원주시청, 2012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어 2013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까지 무실동으로 옮겨 오면서 행정 중심 구역이 됐다. 2020년 12월 현재 무실동은 13,757세대 32,678명이 살고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무실동의 주요 행사를 살펴본다.

2000

08/22 원주시청사 이전 후보지로 반곡동 종축장, 무실동 포복산, 행구동 치악훈련장 3개 지구로 압축

09/24 제2회 무실동민 효도 잔치 및 체육대회 개최

2001

01/05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앓은뱅이 얼음 썰매장 개장

02/04 제1회 무실동민 척사대회 개최

06/10 제1회 무실동민 화합체육대회 개최

09/20 만대1리 경로당 개원식

2002

03/19 무실동 자율방범대 창단식

03/23 무실동 자율방범대 발대식

06/18 무실주공아파트 노인정 개원식

2003

03/12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04/24 무실 2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09/28 무실동민 옛길 걷기대회 개최

12/22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남원주 역사 건립 2012년으로 연기

2004

04/20 무실동사무소 청사 기공식

08/09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 무실동 화합잔치 공동 개최

08/03 무실동 인구 1만3천500명 돌파

09/21 무실동사무소 청사 준공식

2005

01/10 무실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02/26 초대형 윗놀이 개최

04/17 이촌마을 주말농장 개장식

07/07 원주교도소 외곽 이전 건의안 법무부 발송

10/10 무실동사무소~원일새마을금고 무실지점 150m 구간 노상주차장 유료화
철회 요구 민원 제출

11/01 무실3통 경로당 준공식

11/07 무실동 요진보네르카운티 주민복지관 및 경로당 준공식 개최

12/23 RDF 연료 용역 보고회 개최

2006

04/07 무실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07/31 한국토지공사와 원주시에 무실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청원서 제출

2007

05/01 통합 민원 발급창구 운영 시작

05/21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화

09/15 제4회 무실동민 어울림 등반대회 및 노래자랑 개최

10/01 원주시의회 무실동 주민간담회 개최

11/20 원주시청 무실동 시대 개막 축하 무실동민 환영행사 개최

11/21 원주시청 신청사 준공식

2008

03/25 남원주역세권 사전환경성 검토서 주민설명회 개최

10/18 제5회 무실동민 어울림 등반대회 및 노래자랑 개최

12/15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 청사 이전

2009

- 01/07 대성중·고등학교 일원 57만3천㎡ 무실4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02/08 2009년 무실동민 윗놀이 어울림 한마당 개최
- 10/29 (구)자연유치원 앞에서 흥업로로 연결되는 연장 157m의 4차선 도로 개통

2010

- 01/27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개소식
- 05/06 대한지적공사 원주지사 사옥 준공식
- 10/17 제6회 무실동민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2011

- 04/25 무신호 교차로 존(Zone) 설치
- 05/20 만대초등학교 개교 기념일 지정 및 정식 기념식 개최
- 06/27 무실동 너름공원 우수저류시설 준공식
- 07/15 제2회 박건호 시 낭송·음악회 개최
- 08/04 소초면 결연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시작
- 09/01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소식
- 10/09 제7회 무실동민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 11/23 '무실동 직거래 장터' 폐장

2012

- 03/16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청사 이전식
- 04/26 무실2바퀴 바구니 사랑 발대식 및 환경정비 운동 개최
- 06/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신청사 준공식

09/08 제8회 무실동민 어울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11/28 원주시의회,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무실동주민센터 현 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 건 모두 부결
- 11/29 무실동 인구수 3만 명 돌파
- 12/17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전면 백지화

2013

- 04/05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재출범
- 04/0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신청사 업무 개시
- 05/15 무실동주민센터 신축·이전 계획 제출
- 08/22 무실동 원주교도소 봉산동 이전 결정
- 10/05 제9회 무실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014

- 03/03 솔샘초등학교 개교 및 입학식 개최
- 04/23 무리실마을 기념비 제막식 진행
- 08/22 2014 원주희망나눔 페스티벌 개최
- 10/03 제10회 무실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11/10 무실동주민센터 신청사 완공
- 12/01 무실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

2015

- 03/29 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
- 09/05 제11회 무실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016

- 06/16 소초면과 무실동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
- 09/03 만대공원 생활체육시설 준공식
- 09/20 지역맞춤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10/01 제12회 무실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10/25 원주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 10/26 무실2지구 생활도로 교통개선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2017

- 01/19 무실동 맞춤형 복지 업무협약식 개최
- 01/11 무실동 한마음 척사대회 개최
- 08/01 명륜종합사회복지관 · 원주남부하나센터와 지역복지 협력강화 협약식
- 09/16 제13회 무실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09/21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 12/11 무실동 도시계획도로살리기 대책위원회 시청 앞 광장 집회
- 12/26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이전 업무 개시

2018

- 03/23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준공식
- 04/09 요진보네르카운티 건너편 태극동산 조성
- 10/05 커뮤니티케어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강식
- 10/09 제14회 무실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019

- 02/14 골목길 무단투기 무실동 주민감시단 발족
- 05/06 무실동 주요 사업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관 마련

- 09/28 제15회 무실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10/07 무실동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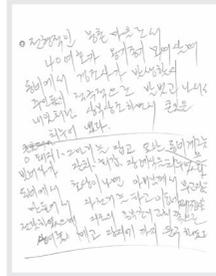
2020

- 01/20 치매안심센터 이전
- 02/01 무실동 한마음 척사대회 개최
- 02/12 무실동 보건복지타운 입주식
- 08/10 희망 지킴이단 발대식
- 10/12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식
- 11/30 판부면 서곡리 1천122m² 무실동으로 편입



마을에서 만난
사람

무실동의 중심가 본동



날 짜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무실본동 경로당

질문자 서정덕 위원

답변자 박용식, 류재원, 류성선

•
춘천지방법원이 있는 번화가. 식당도 카페도 준비하게 있어 밤이 되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무실동의 중심지다. 지금은 무신타지, 시청로, 북원로로 불리지만 오랫동안 무실동에서 산 주민들에게는 낯선 이름이다. 50세 이상 주민들은 아직도 본동이라고 부른다. 본동本洞은 무실동사무소가 있었던 마을의 중심을 말한다. 본부락이라고도 한다.



본동은 논과 과수원이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40세대 정도가 살았는데 마을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모든 주민이 함께했다. 논에는 항상 물이 많이 나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예삿일이어서 논에 나뭇가지를 꽂아 놓았다.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다.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다. 소도 논을 갈다가 못 빠져나왔었다. 공사할 때 굴삭기도 못 빠져나와서 진짜 고생했었다.

마을에서 큰일이 있을 때 필요한 주방도구 등을 보관해 놓는 과방이라는 곳이 있었다. 경조사 모를 심거나 타작을 하는 날에는 과방에서 그릇을 빌려다 사용하고 갖다 놓는 공유 시스템이다.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마을 사람 모두 상가집에 가서 도왔다. 타작하거나 결혼식이 있으면 돼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침개도 부치고 떡도 해 먹었다. 동네 꼬마들도 다 모이는 날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불러서 먹고 가라고 했다. 그때 참 정이 많았던 것 같다. 누가 돌아가셔도 일하는 것은 동네 사람이었다. 그때는 16명이 있어야 상여를 뭉 수 있었다. 지금 세영리첼아파트랑 우미린 107동 있는 쪽이 공동묘지였다. 그때 무실세영리첼2차아파트가 있는 쪽을 고목골이라고 했는데 서낭당이 있었다. 서낭당 앞을 상여가 지나가면 줄초상이 난다고 해서 현재 중부감리교회가 있는 쪽으로 돌아갔다.

과수원이 많았던 마을

과수원이 많은 마을이었다. 60~70년대는 과수원이 많아서 청춘 남녀 데이트 코스였고 많은 학교의 소풍 명소이기도 했다. 김종용 씨가 배 농사를 아마 무실동에서 처음 시작했을 거다. 본동 뒷동산으로 소풍을 많이 왔는데 마을 주민에게 큰 명석을 빌리러 오거나 물을 뜨러 왔던 기억이 많았다. 지금 삼육중고등학교 자리가 셋별 농장이라고 아마 무실동에서 제일 컸을 거다. 소풍 다녀간 곳을 가 보면 동전이나 먹을 것을 흘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 친구들이랑 꼭 올라갔었다. 먹을 게 없었으니 그거 주워 먹는 것만으로도 좋았었다. 참새를 잡아먹기도 했었다. 한나절에 170마리 정도를 잡아서 먹었다. 뒷동산에 참나무가 많았는데 사슴벌레를 잡아서 학교 갖고 가면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공책으로 바퀴

주기도 했다.

순식간에 결정된 교도소 건립

교도소 들어올 때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다. 어느 날 항공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보름 만에 부지가 선정됐다고 하더니 토지 보상이 보름도 안 돼 끝났다. 그때 아마 평당 3천 원 정도 했던 거 같다. 정말 순식간에 결정되고 교도소가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이 교도소 지을 때 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 우리도 동네 형들이랑 가서 일했다.

교도소가 들어오고 나서는 마을이 많이 변했다. 1979년에 교도소가 지어졌는데 그때는 대중교통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면회하려면 전날 무실동에 와서 자고 다음 날 면회하고 갔다. 여름에는 숙소를 안 잡고 나무 밑에서 자고 면회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우리 아내랑 1년 반 정도 그 앞에서 구멍가게를 했다. 그때는 재소자들이 나와서 마을 청소를 했었다. 교도소 정문부터 지금 무실 주유소 정도까지 했던 거 같다. 교도관 포함해서 8명 정도가 나와서 했던 거 같다. 학교 갈 때 보면 나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6.25 전쟁 때 지금 교도소 있는 그 자리에 30여 명 정도의 시신을 묻었었다. 사람을 묻어 놓고 휘발유를 뿌려서 화장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다 안 탔는지 나중에 유가족들이 찾느라고 애먹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도소 지으면서 유골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또 다른 추억

옛날에 동사무소 뒤쪽에 무실 방앗간이 있었다. 방앗간 뒤편에 큰 논이 있었다. 벼를 베고 나면 거기는 동네 꼬마들 놀이터였다. 벧짚을 골대 삼아 내기 축구를 했었다. 공도 없어서 돼지 오줌통으로 했었다. 여름, 가을에는 신발도 없이 맨발로 했다. 지금 같으면 위험해서 못했을 텐데 그때는 맨발로 걸어 다녀도 다칠 위험이 없었다. 지금 펜싱하듯이 나무 막대가 상대편 몸에 닿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도 했고 자치기, 칼싸움도 했었다.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 류성선 예전에는 결혼식을 시내에서 하고 집으로 올 때 택시를 타고 왔었는데 우리 아버지(류재원·사진)는 결혼식을 무실회관에서 했다. 집이랑 무실 회관이 너무 가까우니 택시를 탈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웨딩카처럼 리어카 양쪽에 아카시아를 꽂고 내가 두 분을 태우고 왔다. 그때 결혼식 사진을 보니 새롭다.



무실본동 경로당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서정덕 위원, 류성선씨, 류재원씨, 박용식씨

행정의 중심 만대마을



날 짜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오후 1시

장 소 고씨네 양념구이

질문자 이태균 위원

답변자 고성웅, 고성칠, 신재용

•
무실동에서 배부른산 방향으로 있는 송삼, 만대마을. 원주시청이 있는 행정의 중심이다. 옛날에는 워낙 깊이 들어가야만 나오는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시청로로 이어진 마을이다. 일만 호가 거주하는 큰 마을이었다고 하며 만대마을 뒤편 봉화산 입구에서는 옛 기와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무실동은 예전에 조용한 시골마을이었다. 원래는 피난하기 좋을 만큼 깊이 들어와야만 있는 줄 아는 마을이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옛날 무실동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웃 간의 정이 참 좋았다. 모를 심을 때 품앗이를 하며 여럿이 함께 나눠 먹은 밥은 정말 맛이 좋았다. 지금은 사람 품앗이 같은 풍속은 다 잊어버렸다. 기계가 하니까 모를 심어도 옛날 맛이 안 난다. 그 전에는 일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막 걸리 한 잔에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하는 풍경이 있었는데 이웃 간에 마음을 주고받는 게 지금은 사라졌다. 편안해졌지만 의미가 없다. 그래서인지 젊은 시절로 돌아가도 다시 농사를 짓고 싶다. 추수를 하고 파는 걸 나눠 주면 시내로 가지고 나가서 팔았다. 지금 다박골 고개 농협창고 자리에서 팔았다. 거기까지 운반



시청서 내려다본 만대마을

은 지게나 리어카로 했다.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나가고 고생을 엄청 했다. 경운기는 한참 있다가 나왔다. 그때 당시 쌀 1가마에 300원~500원 했다. 땅은 500원 정도였다. 그때는 힘들고 고달팠지만 지금 생각하면 재미가 있었다. 무실동의 자랑은 마을 사람들이 순박하고 서로 관계가 돈독하며 마을에 애정이 있다는 점이다. 단합이 잘되는 게 대동계에서 보인다. 집안의 장례나 마을의 큰 행사를 함께 치렀다. 몇 날 며칠을 자기 집 일처럼 살뜰하게 돌봐 줬던 이웃 간의 정이 세월이 지나도 남아 있다. 송삼, 만대부락은 본동에 비해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다. 예전에도 송삼, 만대부락은 교통이 최고로 안 좋기로 손꼽히던 곳이다. 송삼은 버스도 안 다니던 곳이고 지금은 본동이 바로 앞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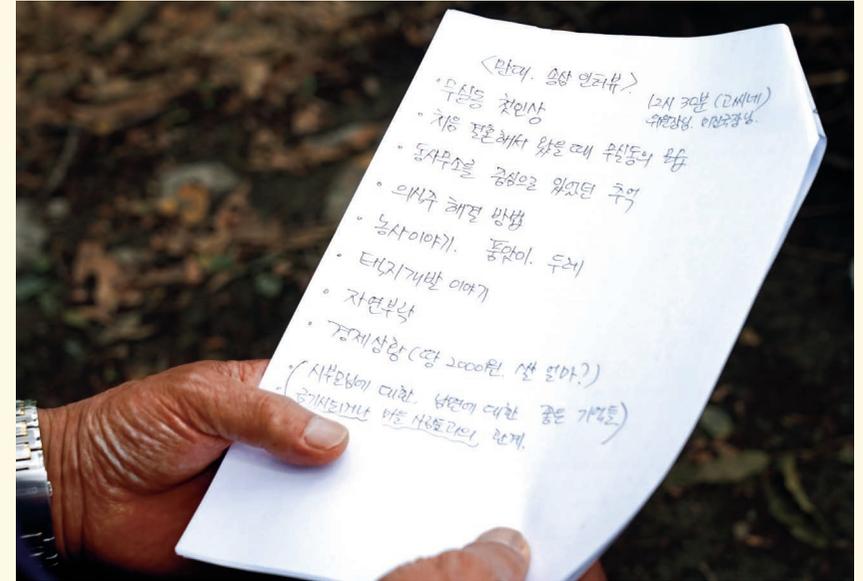
로 보일 만큼 가깝지만 옛날에는 출세해서 나간다고 본동으로 간 거였다. 그때는 길이 더 꼬불꼬불해서 본동이 아주 멀게 느껴졌었다. 지금 무실동 호텔 K자리가 예전에 사람들이 살던 자리인데 길이 구불구불했고 지금은 몇 발짝 안 가도 본동이다. 가깝고 거리가 얼마 안 돼 보여도 원래는 엄청 멀었다. 시청이 있던 자리는 과수원이었고 그 밑으로 엄청 변했다. 새마을 사업을 할 적에는 정부에서 시멘트만 내려 주면 마장동, 흥업으로 가서 모래랑 자갈을 실어다가 길을 다 직접 포장했다. 1만 호가 살아서 만대라는 이름이 붙여진 마을에서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을 생각해 보면 자식 농사 잘 지은 일이라고 말했다.



2004년 원주시청 부지



2004년 원주시청 부지



이태균 위원장이 준비한 질문지



인터뷰 모습



왼쪽 뒷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형순 위원, 김현숙 위원, 서정덕 위원, 이태균 위원장, 신재용씨, 고성철씨, 고성웅씨

마을 경조사 가족 일처럼 했던 마을



이촌마을

남원주 역세권 개발 동네인 이촌마을은 예전에는 무실동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사는 곳이었다.

행가리

전에 효자문과 열녀문이 길가에 서 있었다고 한다. 양반이 많이 살고 주민들의 행실이 옳아 다른 부락에 모범이 되므로 아름다운 길가의 부락이라고 하여 행가리(行街里) 또는 행가리(行佳里)라고 하였으며 지금도 김해 김씨 후손들이 촌락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날 짜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5시

장 소 3통 마을회관

질문자 최형순 위원

답변자 박화영, 원용호, 서정호, 박금석, 원상호, 김태식, 안황금

아직도 예전의 모습이 조금씩 남아 있는 무실 3,4통. 이촌마을, 행가리, 주막거리가 있는 양지마을, 마장마을, 은행정마을 5개 마을로 구성된 곳이다. 적게는 40년, 많게는 60여 년간 6대째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을 만나 무실동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해 들어 봤다.





양지마을 느티나무

양지마을

주막거리, 합포원, 탐거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 양지마을은 해가 잘 들고 남송천, 서곡천, 매지천이 합쳐지는 곳이다. 그래서 합포원이라는 이름이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양지마을은 해가 잘 드는 양지라서 양지마을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정확한 지명의 유래는 알기가 어렵다. 마을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다. 450여 년 된 느티나무는 몇 사람이 둘러서야 손을 맞잡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다. 마을 주민들이 원주시에 보호수 지정을 신청했는데 보호수로 지정되는 기준에 둘레와 수령은 맞춰졌지만 원래 나무줄기가 불에 타면서 높이가 기준에 모자라서 지정을 받

지는 못했다고 한다.

합포원은 남송천, 서곡천, 매지천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막걸릿집이 있어서 주막거리라고 불리기도 했고, 탐을 세우는 곳이어서 탐거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지금 탐거리라고 불리던 곳에 이시화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탐을 세워 놓기도 했는데 마을 어르신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지명이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마장동마을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시가지가 다 됐는데 조선 시대 때 원주는 북원경이었고 충주는 중원경이었다. 원주에서 한양으로



마장동마을

가든 충주로 가든 여기에서 말을 추스르고 갔다고 해서 마장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장마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지금의 목욕탕과는 다르다. 마을 주민들이 목욕탕이 필요하니 짓자고 회의를 해서 목욕탕을 만들었다. 주민들이 모여서 벽돌을 찍고 아주 커다란 가마솥을 얹어 놓고 물을 데워서 그걸로 목욕하는 목욕탕을 만들었다. 오늘은 남자들이 목욕하는 날, 내일은 여자들이 목욕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했다. 목욕탕 자리에서 20m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큰 솥에 가득 넣고 사용했다. 우물도 동네 사람들이 돌을 쌓아서 만든 우물이었다. 지금은 다 메워졌지만, 위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1967년도에 원주에 피부병이 돌았는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피부병이 전염되는 바람에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해 오던 목욕탕은 사라지게 되었다.

은행정마을

은행정마을의 앞뒤로 은행나무가 있다. 그래서 ‘은행(銀杏)’에 머무를 ‘정(停)’자를 써서 은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은행나무는 약 300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고 둘레는 약 16.5m이다. 은행정마을에는 소식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하나 있다. 소식을 전해주는 고개라는 뜻이라고 한다. 어렸을 적 할머니에게 그 고개

는 왜 소식고개라고 하냐고 물어보니 마장동에 사람들이 오면 소식을 전해 준다 해서 소식고개라고 부른다고 했다. 소식고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마재고개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가 넘어가는 길이었고 지금은 둔전길이 되었다.

은행정마을에는 한국전쟁 이전에 화장터가 있었다. 전쟁이 났을 때는 군인들 시신을 거기서 태웠다. 그러다 보니 밤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넘어 다니질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고개를 넘어가는데 장작더미에 시신을 태우는 걸 보며 거길 걸어서 가는데 뭐가 벌떡 일어나더니 떨어졌단다. 그게 사람이었다고 한다. 자기 가족을 거기 갖다 태운 게 아니고 전쟁 때 군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갖다 태운 거다. 정양 병원이라는 병원도 있었다. 작은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제조소 다니면서 맨날 술을 드셨는데 그러다 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오는 날(거길 오다가 뭘에 흘렸는지) 집에 하도 안 와서 찾아가니까 혼자서 뇌라, 가야 된다라며 흘린 듯이 그러고 있었다. 오싹했다. 어렸을 적 화장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쪽으로는 가기가 무서웠다. 은행정 마을에는 지금은 호저면으로 이전한 심향영육아원이 처음 설립되고 운영된 곳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전쟁 때 고아들이 이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마을에는 도롱뇽이 살아서 도롱골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복골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은 도롱골이라고 불러서 지명을 변경하고 싶어 했다. 마을에 다리를 놓을 때도 다리 명칭을 도롱



암나무



수나무

은행정마을 부부은행나무

골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금 남원주기구단지 뒤에는 샘이 하나 있었는데 옷이 옹거나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 샘물로 세수하고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한다.

부부은행 나무

삼국시대 서곡대사라는 고승이 판부면 용수골에 후리사라는 사찰을 지었다고 한다. 그 후 사찰은 사라졌지만 창건자인 서곡대사 이름을 따서 서곡리라고 했다. 그때 후리사 주지스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다 은행나무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위쪽에는 수나무가 마을 길가에는 암나무가 있다.

용인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가 암나무인데 날씨가 맑은 날에는 여기서도 용문사 불빛이 보인다. 우리 마을 수나무가 용문사 은행나무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은행나무 수령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 원래는 700년도 넘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서 다시 자란 나무의 나이테로 측정하다 보니 300년이 된 것이다.

길가에 있는 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으로 여긴다. 그래서 매년 음력 10월 1일 오후 7시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사를 드린다. 제사 비용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부담한다. 많을 때는 30여 명이 모여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15명 정도 모인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은행나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품앗이

옛날 농사를 지을 때 마을 사람들은 품앗이를 했다. 반상회를 열어서 오늘은 누구네 집, 내일은 누구네 집 이렇게 날을 잡고 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심는 날을 정했다. 한 집이 열 마지기다 그러면 열 명을 보내 주는 방식이었다. 어떤 집들은 논이 열 마지기여서 열 명을 사야 하는데 여덟 명을 사고 그러면 여덟 명이 한나절을 했다. 일찍 끝나면 콩밭에 가서 밭을 땀다. 우스갯소리인데 다음에 가면 일부러 아주 천천히 늦게까지 일을 했다. 3시에 끝날 것을 5시까지 느리게 하고 그랬단다. 다른 일 하러 안 가려고. 그때 그 세월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신다. 지금은 옆에 이사 온 사람도 모르고 한 동네 사는데 이름도 모른다. 예전에 품앗이하면 돈으로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쌀 몇 되 이렇게 일당으로 주다가 그 집에 다시 품앗이로 갚는 방식으로 임금을 줬다. 소를 가져오는 사람은 잘 쳐 줬는데, 신 일꾼(쟁이꾼)이라고 했다. 남들보다 일이 일찍 끝나기도 하고 어느 집 소가 좋은 소인지 서로 다 알고 있었다. 자녀 중에서 학교를 보낼 때 학비가 필요한데 소가 새끼를 낳으면 학교에 잘 가는 거고 못 낳으면 어렵게 되는 일도 많았다. 가을에 추수할 때도 모두 모여서 벼를 거둬들이다 보면 밤 12시, 새벽 1시가 되는데 그때는 일을 그렇게 했다. 그 뒤에 리어카가 나왔는데 그때는 리어카도 서울 가야 사 올 수 있었다. 수확한 작물을 파는 걸 제자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자들은 작물을 머리

에 이고 중앙시장에 가서 팔았다. 학성동에 곡물 창고가 있었는데 무실동 사람들 모두 리어카를 끌고 거기까지 갔다. 무실동 논은 물이 잘 안 빠져서 벼가 잘 안 마르는 데, 곡물 창고에 가져가는 날에 덜 마른 걸 가져가면 며칠 있다가 다시 가져오라고 하면 다시 가져와서 말려 가야 했다. 동네에 버스가 들어온 뒤에는 버스에 실어서 팔러 갔다. 둔전들은 농사지을 물이 부족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같이 매지천 취수장에서 남겨산 정상까지 물을 끌어 올릴 수 있게 공사를 직접 해 자연스럽게 마을까지 물이 흘러 내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물이 부족해서 상뜰, 하뜰, 중뜰 나눠서 차례대로 모를 심기도 했다. 무실동 안에서도 물이 잘 빠져 가뭄이 드는 곳도 있고 한번 물 대면 나홀씩 가는 곳도 있었다. 그때 마을버스는 12인승의 작은 버스였다. 그때 버스는 사람보다 작물을 더 많이 실어 나를 때도 있었다.

대동계

5개 부락의 장점은 무엇보다 단합이 잘된다는 점이였다. 요즘은 장례문화가 화장이지만 예전에는 부락에서 장사가 나면 삼일장, 오일장을 집에서 지냈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제쳐 두고 한식구처럼 장례 내내 일을 봐줬다. 마을에 ‘곳집’이라고 장례용품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는데 최근에 허물었다. 장영순씨네 옆에 곳집이 있었다. 시에 헐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에서 와서 헐었

다. 그 상여를 마지막으로 간 사람이 우리 어머니다. 동네 마을별로 이중계가 있었다면 5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만든 건 대동계라고 한다. 동네별로 있는 이중계에서 대동계로 얼마씩 넣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지금의 무실어린이집이 만들어질 때 마장부락의 이중계, 대동계의 지원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무실동 어린이집

이희복씨가 마장부락 회관에서 조그맣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 터가 좁아 확장을 해야 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회의해서 우리가 땅을 사 터를 만들어 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원주시에 건의했다. 부지가 있으면 시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주겠다고 해서 마장부락 이중계의 지원으로 어린이집이 지어졌다. 당시에는 땅을 가진 사람이 시사해서 터를 만들기도 했고 건물을 지을 때도 5개 부락의 청년들이 모두 도왔다. 시에서 건축비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참나무를 베어다가 밑에 받치고 하면서 만들어졌다. 지금 같으면 땅을 시사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어린이집, 마을회관 등에 시사한 이야기를 들으니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 한 집의 개인적인 일로 되어 버렸지만 무실어린이집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되면서 드는 생각

“내 고향은 여기인데 고향 뺏기고 쫓겨 나가니까 그게 억울하다. 제값도 못 받고 쫓겨 나가니까. 나는 맨날 옛날 집터를 왔다 간다. 거장 아파트에 임시로 와 있는데, 내려와 보면 허허벌판이다. ‘아, 여기가 원래 우리 집이었는데...’ 하면서 한참 내려다본다. 그게 억울하다. 쫓겨나는 느낌이다. 여러 사람은 보상받으면 좋겠다지만 그렇다.”

“고향이어서 개발 후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보상받은 데서 세금 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아침에 걸으면서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내 땅. 이런 생각이 들고 애착이 가는데 현실이 안 따라 준다.”

택지개발로 시가지가 되었지만, 이웃 간의 정이 있고 너나없이 공동으로 살아온 터에 대해 아쉬움과 섭섭함이 남아 있다.

무실동에서 오래 산 이유

6대째 살아오고 있는데 조상들이 살아온 곳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여기 육민관중고등학교를 다들 나왔다.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옛날엔 학교가 멀면 고등학교도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교육 환경이 좋았다.

무실마을기록위원회는 무실동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나 집을 찾았다. 택지가 개발되면서 대부분 새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 무실동에서는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건물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나마 송삼마을, 은행정 마을은 옛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정보를 찾던 중 서교하 근대건축연구소 소장의 도움으로 송삼마을에 잘 지은 오래된 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실마을기록위원회는 10월 26일 전통 가옥 전문가인 백경기 우리문화 대표와 송삼길 117-2을 찾아갔다.



송삼길 117-2에 기억자로 지어진 이 집은 62년 됐다. 서교하 원주근대도시건축사연구소장이 이 집을 처음 본 것은 2014년 7월 경이다. 근대건축물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원주 곳곳을 다니다 발견했다. 10월 26일 마을기록위원회와 함께 찾은 이곳에서 서교하 소장과 백경기 우리문화 대표는 상량문을 확인 후 1958년 지은 집이라고 했다.

백 대표는 “집 크기에 맞춰서 대들보를 찾았을 것이다. 지금은 나무 도매상에 가서 원하는 크기를 이야기하면 되지만 이 집을 지었을 당시에는 직접 찾아야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산을 다녔을 것이다. 잘 마른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집이 그대로 인 것이다. 부재를 잡아당겨서 늘어날 때 발생하는 힘을 인장력이라고하는데 자연스러운 생김새의 나무를 최소한으로만

다듬어서 사용하면 많이 다듬은 나무에 비해 인장력이 훨씬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지붕의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부재 중 하나인 뜬장여가 이 중으로 들어가서 버티는 힘이 훨씬 강한 집이다. 미장을 위해 모래, 흙, 강회를 1:1:1로 섞어서 만드는 것을 삼화토라고 하는데 많이 비빌수록 차지고 잘 갈라지지 않는다. 이 집은 미장도 깨끗하고 돌과 맞닿는 부분의 마감과 기단의 틈새가 깔끔하다.

신재용 4통 통장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다. 바로 위에 더 오래된 집이 있지만 이 집이 훨씬 잘 지은 집이라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옛날 어르신들이 대목이 지은 집이라고 했다”며 “오래도록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주 최초 작목반 '만대시설채소작목반'



만대시설채소작목반은 1984년 원주 최초 작목반으로 17명이 참여했다. 만대부락에 사는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원주시청 이전으로 마을이 개발되기 전까지 운영되었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원주센터 근처에 하우스 5개 동이 있었으며 토마토, 고추 모종을 키웠다. 고(故) 고성진씨가 초대 반장을 맡았으며 고성웅씨가 뒤를 이었다. 마지막 총무를 맡았던 남기섭씨가 만대시설채소작목반의 활동을 정리해 놓은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39cm×29.5cm 크기의 파일에는 76장의 색지(노랑, 분홍, 파랑)에 300여 장의 활동 사진이 있다. 공동육묘장 관리하는 모습과 척사대회, 관광 등 84년 1월 31일 마을 전경 사진부터 86년 사진까지는 연도가 적혀있으나 이후 사진에는 연도와 날짜 없이 사진만 있다. 만대시설채소작목반이었던 홍성하씨(왼쪽)와 남기섭씨를 만났다.

만대시설채소작목반 반원 명단 故 고성섭, 고성웅, 故 고성진, 고성철, 고성환, 구건희, 김봉섭, 김상열, 김응숙, 남기섭, 故 신명구, 심부섭, 故 이중범, 이환, 故 임연수, 홍성철, 홍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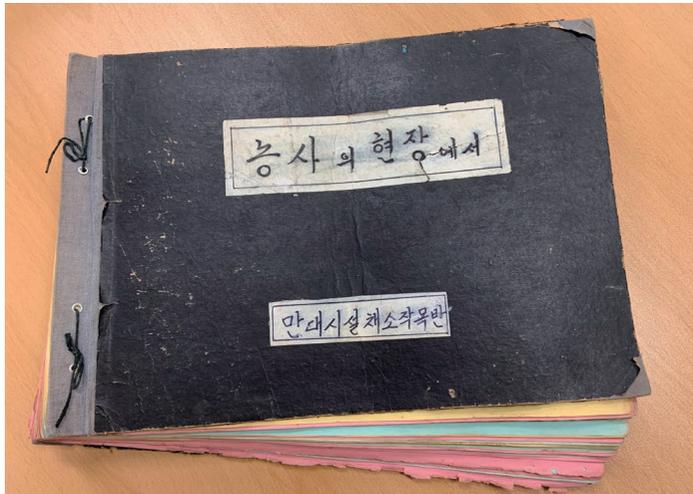


만대시설채소작목반은 1984년 1월경 원주시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작목반을 구성하면 정부 지원을 받기도 쉽고 서울 직거래 하기도 수월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뜻을 모았다. 그때만 해도 원주시내에서 우리 마을에 하우스가 가장 많았다. 첫 모임은 고성진씨 집이었던 것 같다. 그때 고성진씨가 반장을 맡았고 유병옥씨가 농협 담당자였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30대~50대까지 17명 정도가 모였다. 회원은 남자 중심이었으나 부부 동반으로 참여해 30여 명 정도 됐다. 작목반이 하는 일은 하우스에 심은 모종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보통 토마토, 고추였는데 2인 1조로 나눠 매일 하우스 육묘장 모종에 물을 주고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야 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았어서 관리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물은 물조리개에 담

아 하우스마다 다니며 줬다.

육묘장은 하우스 5개 동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사거리쯤 1,650㎡(500여 평) 부지에 세웠었다. 밭에 심을 씨앗을 같이 샀고 하우스에서 모종을 키워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눠 가졌다. 1월부터 3월까지 하우스에서 키우고 봄이 되면 모종을 각 회원들이 나눠 가져가기 때문에 하우스는 철거했다. 땅 주인은 그 밭에 농사를 지었다.

그때는 무실동에서 토마토 농사를 많이 지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20kg씩 판매할 때었는데 차츰 소포장 판매가 늘었다. 무실동에서는 7월이면 토마토 농사가 끝났는데 그때는 값이 없었다. 그러다 한 달쯤 수확 시기를 늦췄더니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됐다. 억제 재배를 해서 가을까지 수확을 했더니 수입이 늘었다. 그때



'농사의 현장' 일지

황성군 둔내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토마토 농사짓는 방법을 배워 갔었다.

만대시설채소작목반 활동 사진과 일지를 기록해 놓은 '농사의 현장에서'를 보면 1984년 1월 31일 마을 전경 사진이 있다. 배추 밭과 슬레이트 지붕 집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공동육묘장 하우스 안내판에는 면적과 육묘 기간, 기술 지도, 책임자, 참여 농가가 적혀 있다.

1988년 1월 23일에는 원주단위농협 대 만대작목반 제1회 친선 단합대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사진 속 주민들은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다. 단합대회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윷놀이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농사의 현장에서'에 스크랩된 신문에는 초대 반장을 맡았던 고성진씨(당시 49세)의 인터뷰가 있다. 인터뷰 기사는 다음과 같으며 언론사와 발행 날짜는 알 수 없다. 기사를 통해 당시 작목반의 활동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신문 기사 전문〉

협동이 가져다 준 힘의 소중함

원주 무실동 만대채소작목반



인터뷰 기사

선진복지농촌의 꿈은 현실적 악조건하에서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더욱 가까이 있는 법. 원주시 무실동 만대고추협동출하반(반장 고성진·49).

입지적조건이 불리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이라는 유산을 물리치기 위해 호당 0.5ha미만의 영세한 경기면적아래 40여 농가가 수도작과 고등소채, 약간의 과수와 축산을 하고 있는 농촌마을인 무실동 일대. 고씨는 이촌율이 높고 못사는 것을 조상 탓만 하던 동네를 잘사는 마을로 이룩하기 위해 83년 12월 농민대학에 참석해 강사들의 훌륭한 강의 내용과 독농가들의 성공 사례에 자극을 받고 동네 청년들을 설득해 우리도 단합하고 화합한다면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원주단협의 영농부장과의 의논, 협동출하반을 조직했다. 84년 1월 12명의 청년회원으로 구성된 만대시설채소작목반은 처음 기존의 작목반이나 청년회원의 운영이 유아무야 되면서 새로이 작목반설치에 따른 회원가입 설득의 어려움을 극복, 이제는 17호의 농가가 참여해 명실상부한 고소득 복지 농촌 건설의 영농주체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처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마을작목반을 꼭 성공시키려는 고씨의 노력은 필요장부의 구입과 영농부장과 의논으로 적합한 작목선택, 작목반의 사업계획서와 작목반원 개개인의 영농계획서를 수립해 놓고 노력과 비용절감, 반원들의 평균된 육묘기술보급과 건묘육성을 위한 공동육묘장설치운영을 최초사업으로 전개했다.

공동육묘장은 47단보의 정식면적에 재배할 고추 18만 본을 건묘육성, 단보당 1백20만 원의 생산실적을 나타내 5천2백만 원의 기대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려 영농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한 협동에 의한 공동생산으로 만대작목반은 84년도에 47단보의 고추 정식면적을 2개조로 편성, 5일 만에 성공적으로 정식을 마쳤으며 지난해엔 82단보의 고추정식을 반원 남녀 전원이 총동원되어 6일 만에 끝내 협동이 이루어내는 힘의 소중함과 이제부터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로 충만하게 되었다. 한편 영농에 필요한 모든 영농자재 농약, 비료, 종자, 농자재는 반원 개인별 주문을 받아 농협연쇄점이나 신용 있는 상회에서 공동구입, 저렴한 가격과 신용 있는 물건

을 반원에 공급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만대 시설작목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84년도 재배작목으로 고추를 선택, 소득향상에 기여한 데 있다. 고추작목의 선택은 국내 고추재배면적의 감소추세와 무실동 마을 지형여건이 재배에 적합하리란 점 그리고 원주단위농협부장의 시세 통계와 각 종묘사의 종자판매량조사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설계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에따라 특수재배기술을 발휘해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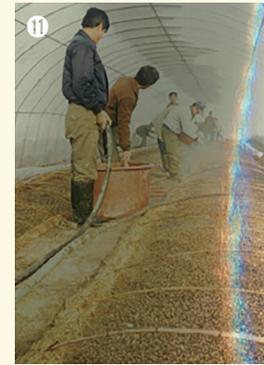
고추의 정식포에는 고추전용복비를 사용함으로써 고추에 필요한 3요소와 미량요소를 충분히 공급했으며 고추에 쓰이는 멀칭필름은 백색필름으로 고온장애와 제초작업에 유용한 특수필름을 백색필름으로 고온장애와 제초작업에 유용한 특수필름을 사용했으며 재식거리는 3자×7치로서 초기 비싼 시기에 출하할 수 있는 요령으로 1단보당 5천본이상 정식하였다. 초기 고추재배에 만연했던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농촌지도소와 고추주산단지를 찾아 다니며 방제대책을 강구해 주기적인 공동방제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만대고추작목반은 남이 일 안할적에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 일 앞장서서 할 때 돈도 벌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고추수확시 억센 장맛비에도 아랑곳없이 우비를 걸치고 고추를 수확, 초기 출하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만대작목반은 농협계통 출하를 원칙으로 상품성 향상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규격화 사업에 적극 호응, 골판지 상자 8천 개로

생산량을 서울공판장으로 출하해 시출하중에 의한 수수료 절감(2.2%)에도 노력했다. 작목반 기금조성을 위해서 농산물 판매고의 1%와 농자재 공동구입액의 1% 및 공동작업으로 얻어진 이익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 84년에 1백48만 원, 85년 2백50만 원, 올해 4백만 원 목표로 하고 있다.

만대작목반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공동육묘의 성공에 의해 6백여평의 면적에 5백30만 원을 투입, 4백53평의 공동육묘장을 반원 17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건립해 지난해 토마토, 고추, 배추, 묘를 건묘육성해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만대작목반은 앞으로 호당 비닐하우스 7백평 이상씩 재배 경영해 더덕, 두릅, 달래, 고들배기, 밀동배추 등의 무공해 희귀식품을 고소득작목으로 개발, 도시민의 식탁을 풍부히 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할 작정이다. 9백여만 원의 높은 농가소득을 자랑, 각하하시금지원, 도내 최우수작목반, 새마을로 이름나 있는 만대작목반은 전국 제일가는 선진복지농촌마을로 탈바꿈할 것을 다짐한다.



- ❶ 마을 전경(1984. 01. 31.)
- ❷ 공동 육묘장 입구의 전경(1984. 01. 03.)
- ❸ 파종 후 복토를 하고 있는 모습(1984. 01. 31.)
- ❹ 당번 홍성하씨의 병충해 방제 전경(1984. 02. 23.)
- ❺ 부인들의 봉사 활동은 더욱 고맙기만 합니다.(1984. 02. 23.)
- ❻ 고성진 작목반장님 맥 포트에 토마토를 육묘한 모습 (1984. 03. 25.)
- ❼ 이봉무씨의 배추 정식을 위해 비닐 멀칭을 하고 있다. (1984. 03. 25.)
- ❽ 송별 인사를 마치고 자동차에 오르는 시찰단의 모습 (1984. 04. 11.)
- ❾ 상토를 고운 체로 치는 모양
- ❿ 고추 씨앗은 청홍 풋고추로

- ⓫ 고추를 파종하고 있다.
- ⓬ 지게로 상토를 운반하고 있다.
- ⓭ 보름을 기하여 작목반 주최로 척사대회를 열고 있다.
- ⓮ 노래로 흥을 돋우는 작목반원들
- ⓯ 배추얼갈이 1회 이식 작업에 작목반 내외가 총동원 되었다.
- ⓰ 고추 모를 놓고 있다.
- ⓱ 1986년 파종상을 준비하면서 상토를 체로 치는 모습
- ⓲ 1986년 전열선을 깔아 놓고 전과 막걸리를 먹는 회원
- ⓳ 회관 준공 식전
- ⓴ 잠시 쉬는 모습
- ⓵ 제회 친선단합대회
- ⓶ 삼겹살 로스구이로 입맛을 돋우며

만대부락에는 대동계와 청년회가 있었다. 마지막 총무를 맡은 남기섭씨는 대동계와 청년회 회계 장부를 잘 보관하고 있었다. 14.5cm×21cm 노트 2권과 18.5cm×25.5cm 노트 1권에 입출금이 정리돼 있으며 대동계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갚았던 기록이 남아 있다.



남기섭씨가 보관하고 있는 ‘만대동 저수지계 분급기’와 ‘만대동 계원 대장’, ‘만대청년회 총무용 노트’에는 1981년부터 1997년까지 활동이 적혀 있다. 만대동 저수지계 분급기에는 김상철 등 7명이 각 10만 원씩 나눴다는 내용과 김정경씨 포함 5명이 분급한 내용 등이 있다. 계원 대장에는 대동계 결산서 등이 기록돼 있다. 당시 계장은 고성동씨가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대청년회 노트에도 1980년부터 1997년까지 회비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다.

무실동 최고령 원제하 할머니

날 짜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원주시 둔전길 227-39

질문자 최형순 위원

답변자 원제하

무실동에서 90년을 넘게 산 원제하 할머니를 만났다. 올해 나이 102세로 무실동 여자 최고령이다. 결혼해서 10여 년을 횡성에서 살다 무실동으로 이사 왔다. 인터뷰 뷰는 50여 년 넘게 할머니 이웃집에서 살아 온 최형순 위원이 진행했다. 인터뷰 간 날은 원주시정 방송에서 촬영을 나왔고 4통 박화영 통장과 사위 김성준씨, 작은 딸 최정숙씨, 조카 원팽식씨, 조카 며느리 한선옥씨 그리고 마을기록위원장인 서정덕 위원, 윤창희 위원도 함께했다. 할머니는 큰딸 최영자씨(69)와 살고 있었는데 손님이 온다며 화채와 떡을 준비해 주셨다.



올해 102세다. 저녁 먹고 9시쯤 자고 아침 8시쯤 일어난다. 사람들이 오래 사는 방법을 묻는데 그냥 베풀고 감사하며 살면 된다. 인생 살고 보니 다 거기서 거기다. 그저 욕심부리지 않고 살면 된다.

나는 저 아래 창고 터에서 태어났다. 오빠 둘, 언니 하나, 동생 둘까지 6남매였다. 언니 오빠도 70세에 떠나고 지금 나만 남았다. 어릴 때는 가난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다. 여자가 공부하면 시집가서 힘들 때마다 집에 편지 쓴다며 공부를 안 가르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이름 석 자 밖에 쓸 줄 모른다. 결혼은 18세에 했다. 횡성군 서원면에 사는 남편을 만나 서원에서 10년 정도 살았다. 횡성에서 6.25 전쟁을 겪었는데 전염병으로 친정 부모님을 3개월 차이로 떠나보냈다. 2



원제하

월에 친정아버지가, 5월에 친정어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그리고 같은 해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같은 해에 세 번의 장례를 치르는 기막힌 일을 겪었다.

횡성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았다. 워낙 가진 것도 없었고 힘들게 사니까 큰오빠가 원주로 다시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사 와서 산 게 지금까지 사는 것이다. 남편이 목수여서 여기저기 다니며 집을 지었고 나는 농사지으며 살았다.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는데 아들이 먼저 떠났다.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10년 만에 낳은 아들이었다. 100세가 되던 해에 동네 사람과 딸이 잔치한다고 했을 때 아들 앞세우고 내가 무슨 잔치를 여나 싶어서 하지 말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동네 사람

들이랑 딸이 하도 하자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아들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컸다. 살면서 가장 기뻐던 때도 아들이 결혼하던 날이다. 며느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다.

그때는 모내기 철이 되면 나팔을 불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줄모를 심었다. 모내기가 끝나면 취나물을 뜯으러 매지리 뒷산으로 갔었다. 취나물을 뜯어 와 말려 두었다가 겨울에 시장에 나가서 팔았다.

농사지은 건 다라이에 이고 남부시장까지 걸어가 팔았다. 산나물, 콩나물은 물론이고 돈 될 만한 것은 다 갖고 나갔다. 한번 나가면 100원 정도 벌었다. 그때 쌀 한 말이 30원 했으니 꽤 많이 벌었던 거다. 한번은 남부시장에 배랑 나물이랑 팔러 나갔는데 딸이 과자를 사달라고 떼를 썼다. 하도 사달라고 졸라서 슈퍼에 들어가서 “아직 갖고 나온 것을 팔지 못해서 돈이 없는데…”라며 말을 얼버무리니까 과자를 그냥 주더라.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맙다. 예전에는 마이크로버스라고 작은 차가 마을에 있었다. 그러다가 시내버스가 다녔다. 차가 다니고부터는 물건을 가지고 나갈 때는 버스를 타고 돌아올 때는 버스비 아끼느라 걸어왔다. 한 시간 정도 걸었던 거 같다. 사돈이랑 같이 다니기도 했었는데 사돈은 서울로 이사 갔다.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을 못 나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경로당에 갔다. 경로당에 가면 동네 할머니들이랑 모여서 작은 돌맹이를 동전 삼아 화투를 쳤는데 하나라도 더 따려고 열심히

했다. 내가 암산은 정말 잘한다. 제일 친했던 친구는 황금순이다. 나보다 11살 정도는 어렸는데 단팍이었다. 경로당에서 매일 같이 놀았는데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다 작년에 죽었다. 발인하는 날 운구차가 집에 왔었는데 나도 데려가라며 목 놓아 울었다. 그래도 안 데려가더라. 보고 싶다.

무실동에서 9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래도 개발되기 전보다 지금이 좋은 것 같다. 무실동은 내 고향이고 마지막을 함께할 곳이다.



인터뷰 전경과 원주시정 방송에서 촬영하는 모습



원제하 할머니와 돌아가신 남편 최복화씨



100세 잔치



왼쪽부터 박화영씨, 원맹식씨, 김성준씨, 원제하 할머니, 최형순 위원



큰딸 최영자씨(왼쪽)와 작은딸 최정숙씨



무실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우리 마을

무실초등학교 6학년 4반 24명의 아이들이 무실동 마을 지도를 그렸다. 학생들은 각자 마을에 있는 건물을 조사해 사진으로 출력해 A4 종이에 한 명이 2~3개씩 우리 마을에 있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을 그렸다. 마을 지도 그리기를 지도해 주신 문선미 선생님과 6학년 4반 아이들의 소감을 들어 봤다.



“와, 나 여기서 아빠랑 자전거 탔었는데.”

“나 여기 자주 가.”

“어! 난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어.”

“여기 우리 집이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을 직접 그린다는 것은 6학년 4반 학생들에게 익숙함을 설렘으로 바꾸게 하는 일상의 작은 사건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완성해 나아가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스케치를 잘못해서 다시, 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렇게 여러 번 수정하며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국 우리는 무실동 마을 지도를 완성해 내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도 또한 기쁨이었습

니다. 나의 마을 지도를 직접 제작해 본 경험이 학생들 성장의 한 조각은 채울 수 있었기를 교사로서 욕심내어 봅니다.

6-4반 담임 문선미

이성재 뿌듯했다. 내가 그린 그림이 마을 지도의 일부가 되어 힘들게 그린 보람이 있다.

이주안 많은 시간을 거쳐 완성했기 때문에 뿌듯했다.

박진아 무실동 마을 지도를 우리가 그린다는 게 좋았다. 힘들었지만 건물 하나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뿌듯했다.

한혜원 책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렸던 건물은 나이를 먹고도 볼 수 있으니 뿌듯하다.

안윤아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강지연 뿌듯했다.

김태현 힘들었지만 보람찼다.

정의돈 뿌듯했다.

이채민 매우 기쁘고, 내 이름이 실린다니 기쁘다.

박지훈 재미있었고 다음에 다시 하자고 하면 당연히 다시 하고 싶습니다!

유지효 무실동을 그리면서 우리 무실동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장정현 내 그림이 이곳에 계속 남을 것을 생각하니 뿌듯하다.

김태용 기분이 색다르고 책을 빨리 보고 싶다.

원대연 정말 기분이 좋고 책을 보면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전보경 그리는 것이 귀찮았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니 뿌듯하였다.

최지은 자로 하나하나 재고 꼼꼼히 색칠해야 돼 어려웠지만 내가 그린 그림이 지도의 일부가 되고 책에 올라간다니 떨리기도 했고 뿌듯했다. 우리 반 캐릭터도 그렸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며 작업하여 우리 반 친구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이윤정 힘들었지만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만들었는데 완성된 작품을 보니 내가 그린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의 기대를 못 채워 내가 그린 것이 아쉽기도 했다.

김나연 2개를 다 그리고 보니 정말 뿌듯했고 오랫동안 그린 보람이 있다고 느꼈다.

최혜인 몰랐던 우리 마을의 구석구석을 알게 되어 좋았고, 힘들었지만 뿌듯했다. 또 우리 마을의 위치와 건물들을 많이 알 수 있었고 인내와 끈기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이유민 열심히 그리고 난 후 완성된 작품을 보았을 때 정말 뿌듯했다.

박유진 내가 그린 것이 책에 실린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다. 나중에 완성된 책을 보면 신기할 것 같다.

조경준 무실동을 그리면서 무실동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백인성 다른 사람이 내 그림을 보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

나에게 무실동이란?

학생들은 무실동하면 무실초등학교와 원주시청 2가지가 떠오른다고 했다. 우리는 병뚜껑으로 두 건물 중 하나를 표현하기로 하고 먼저 병뚜껑의 개수를 정하는 회의를 했다. 나이를 나타내는 13개, 살아온 날을 숫자로 해 보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중 무실 초등학교 주소가 만대로 155이므로 '155'개를 활용하자는 윤정이 의견에 우리 모두 동의하고 155개의 병뚜껑에 그림을 그려서 원주시청을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무실동 하면 떠오르는 것을 4개씩 병뚜껑에 그렸다. 학생들에게 무실동은 우리집, 내 친구, 그리고 학교, 공부, PC방 등이었다. 학생들은 병뚜껑을 이리저리 배치해 보며 원주시청을 완성하였다. 우리 고민의 결과가 바로 이 작품이다.



병뚜껑으로 만든 원주시청





충천·시흥 방향

제천 방향

중앙고속도로

북원로

우산동 방향

대성기구단지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원주무실주공 5단지아파트

원주무실대림 e편한세상아파트

원주시의회

원주무실휴먼시아 6단지아파트

만대초등학교

원주시청

무실초등학교

원주무실주공 1단지아파트

원주무실주공 7단지아파트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원주삼육초등학교

원주무실주공 3단지아파트

무실드란제아파트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무실동지매안심센터

무실세영리첼 1차아파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요진보네르 카운티아파트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육민관고등학교

남원주 IC

무실세영리첼 1차아파트

무실주공4단지아파트

롯데시네마 원주무실

무실동행정복지센터

육민관중학교

원주무실세영리첼2차아파트

솔샘초등학교

충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휴먼시아원주무실 8단지아파트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무실체육공원

무실2지구 우미리아파트

충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우편집중국

이화어린이공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네 번 이전한 무실동행정복지센터



무실동사무소는 지금까지 네 번 이전했다. 처음에는 현재 무실 8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806동 인근에 있었다. 당시 무실회관을 동사무소로 사용했다. 이후 동사무소가 좁아 이전해야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동사무소 앞쪽에서 작은 가게를 하던 고 강영식 씨가 660(200평)m²를 기부해 건너편에 새로 지었다.

이후 무실택지가 개발되면서 2004년 현 원주농협(시청로 70, 무실동 1641-1) 부지 933m²로 이전했다. 이전 당시 마장동, 본부락 부지 의견이 엇갈렸었고 현재 대성고등학교 자리로 가지는 의견도 있었지만 택지 개발할 때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해 큰 이견 없이 이전했다. 그러나 무실택지 개발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센터는 늘 민원인이 많았고 주차 공간이

날 짜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오후 1시~3시

장 소 무실동 카페 바리스타

질문자 우순자 위원

답변자 채병두 시의원(2002. 7. 1.~2014. 6. 30.), 이명숙 동장(2013. 1. 4.~2014. 12. 31.), 박성근 동장(2005. 7. 11.~2007. 6. 30.)

무실동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명숙, 박성근 전 동장과 채병두 전 시의원을 만났다. 마을기록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인터뷰할 세 명을 선정했으며 무실동사무소 이전과 무실동 초등학교 설립 이야기 등을 2시간 동안 들었다.

※ 행정안전부는 2007년 동사무소를 복지·문화·고용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기관으로 만든다며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꿨다. 동사무소로 불린지 52년 만이다. 이후 2016년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변경했다. 무실동행정복지센터는 현재 만대공원길 14-10에 있는데 네 번째 이전한 곳이다.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했다. 특히 2011년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이 경사면 아래로 밀려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더 불안해했다. 주민센터가 서쪽 방향으로 지어져 민원실이 어두웠고 민원인은 많은데 직원은 적어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 모두가 힘들어했다. 그래서 이전이 더 절실했다. 이런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되자 이전이 현실화됐다.

2012년 2월 원주시가 무실동주민센터를 매각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을 위해 확보했던 무실3지구 내 부지로 이전하기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실동주민센터 부지를 준주거 용지로 변경하고 인근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심의했다.

무실동주민센터가 이전하려고 했던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6,363㎡ 규모로 당시 무실동주민센터 토지와 건물 가격이 46억 원으로 평가돼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신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원주시의회는 반대로 무산됐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신축한 지 9년 밖에 안 되고 이전 부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이전 승인을 부결했다. 그러나 무실동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민센터 내 주차시설 및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 심화 등을 이유로 응답자의 80%가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13년 5월 원주시의회는 무실동주민센터 이전을 승인했다.

2014년 1월 24일 원주시가 무실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설명회를 열었다. 원주시는 26억여 원을 투입해 만대공원길 14-10(NH농협은행원주시지부 옆)으로 부지면적 3,398㎡, 총면적 1,440㎡ 지상 3층 규모 1층에는 주민센터,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와 작은 도서관, 보육실, 3층에는 동대본부와 대회의실을 짓겠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착공했으며 12월 1일 오후2시 원창묵 원주시장, 이상현 원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역대 동장,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었다. 기념식수는 자생 단체 다 같이 했으며 배부른산에 가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2011년 주차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한 의식이기도 했다. 개소식



1965년 무실동회관



1973년 지붕과 건물을 보수한 무실동회관



1982년 무실동사무소 준공





1982년 무실동사무소 준공



2004년 무실동주민센터



2014년 무실동행정복지센터 준공식



2020년 무실동행정복지센터



인터뷰 진행하는 모습



박성근

이명숙

채병두

하는 날은 떡을 해서 동민들과 나눠 먹었다.

자생단체 모두 한 그루씩 기념식수를 했다.

원주 최고의 무실동주민자치센터

2005년 1월 문을 연 무실동주민자치센터는 원주 최고였다. 요가, 사물놀이, 우리춤, 댄스스포츠, 통기타, 노래교실 등 각종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화합은 물론 실력도 뛰어나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휩쓸었다. 2010년에는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우수상과 강원도 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1년에는 무실동 주민자치센터 각 팀을 연합해 구성한 동아리 '신화창조(대표:김용순)'가 강원도 대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원을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이틀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4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날 신화창조는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벨리댄스, 전통춤이 결합한 종합무용작품 '독도는 우리땅'으로 장려상 및 시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40여 개 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총 12개 팀만 본선에 올랐는데 전국 단위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서 원주에서 출전한 팀이 수상한 것은 무실동 주민자치센터의 '신화창조'가 처음이다.

2013년 7월 4일에는 우리춤 동아리팀이 춘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개최된 '제6회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을 수상받고 전국대회에 출전했다. '원주 무실동 명품원주 아라리'를 팀명으로 창작무용극인 '관동별곡 아라리'를 공연했는데 강원도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요 우리 마을의 소망과 기쁨, 시간여행 강원감영의 500년 풍류를 찾아 떠나는 과정을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흥겨운 공연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10월 제 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에서 '팔도강산 행복 아라리요'를 공연해 최우수상(2위)을 수상했다. '팔도강산 행복 아



신화창조



우리춤 동아리



명품 원주 아라리

라리요'는 강원 아리랑 등 전통 민요와 부채춤, 마당극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특색 있는 무대로 큰 박수를 받았다. 당시 이명숙 동장은 김밥 60줄을 직접 싸서 같이 다녀왔다.

'명품원주 아라리'는 소희영 대표를 중심으로 25명으로 구성됐으며, 2009년 7월 동아리 운영을 시작했다.

만대초등학교 교명 우여곡절 끝에 결정

2005년 무실초등학교가 문을 여는데 학생 모집이 안 돼 어려움을 겪었다. 어쩔 수 없이 단계동 아이들을 무조건 입학시켰다. 만대초등학교가 건립될 때는 교명 때문에 혼란이 많았다. 만대초등학교 위치가 만대골이어서 만대초등학교로 하려고 했는데 운곡초등학교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원주교육청에서 교명 선정위원회를 열어 운곡, 만대, 이화, 배꽃 등 8개 후보 교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운곡이었다. 역사적 인물인 운곡 원천석 선생님의 아호를 붙여 원주의 얼을 선양하자는 의미였던 것이다. 원주시도 각종 시설물, 도로명에 운곡 선생님의 아호로 명칭을 부여해 교육청 측에 운곡초등학교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은 교명에 지역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결국 주민은 만대초등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서와 600여 명의 서명록을 제출했다.

가칭 무삼초등학교 교명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협의회가 8월 31



만대초등학교

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원주교육지원청에 접수된 8개 교명 가운데 이화초등학교와 만대초등학교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운곡초등학교는 공립학교에 특징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후보에서 제외됐다.

‘만대’는 조선 시대부터 이 지역에 1만 호의 집들이 모여 거대한 자연 부락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만대마을’이라고 불리던 이 지역의 옛 명칭이다. 예전 명성에 걸맞게 학교가 발전하라는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화초등학교는 수도권에 있는 특정 대학의 부설 학교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 만대초등학교는 2011년 18학급으로 개교했으나 원주교육지원청의 학생 수요 예측 조사가 빛나가면서 1, 2, 4학년의 모든 반이 학급당 기준 정원 34명을 넘어서는 등 전체

의 절반인 9개 학급이 과밀학급이 돼 학부모 불만이 잇따랐다.

솔샘초등학교는 처음에는 송정초등학교로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러다 한글 이름이 대세라고 해서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솔샘’의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원주 첫 한글 교명이며 2014년 3월 24학급 744명과 병설유치원 2학급 50명 등 총 794명 규모로 개교했다. 솔샘초등학교 개교로 무실동 초등학교 과밀현상이 다소 해소됐다.

그리고 우리의 추억

- 1998년 이전에는 예비군중대장을 하다가 동장으로 근무하기도 했었다. 별정직 5급으로 기간은 5년이었던 것 같다.
- 단계동 이화마을이 무실동으로 편입됐을때 당시 단계동 시의원이었던 박대암 의원의 반대가 심했었다. 무실동 개발위원회를 모집했었는데 단계동 사람이 많았다. 체육대회를 해도 무실동 체육대회라는 이름을 못 넣고 무실·단계 체육대회라고 해야 했다.
- 무실동 산악회를 구성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창단을 못하고 무산됐다.

행정 중심의 마을이 되다 '원주시청 이전'

원주시청은 2007년 11월 무실동 산53-2 일원 109,574㎡(33,146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신축됐다. 행정동과 의회동, 공연장 등 시설에 총 1,038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사업비만 940억 원(건축비 859억, 부지 매입비 85억, 기타 55억)이 투자됐다. 2004년 10월 공사에 착공해 3년 3개월여 만에 완공했으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사업소를 제외한 기존의 1, 2청사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등 5개국 24과와 시의회가 무실동으로 이전했다.



원주시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해 2003년에 무실동 만대지구로 최종 결정되었다. 9년여 만의 결정이었다.

2002년에는 이전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청사 이전 위치선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시정의 중심축인 시청사 이전을 조율, 조정하며 현안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되었다.

2002년 8월 지역의 최대 현안을 풀어 가기 위해 현안 대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시청사 건립 위치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학계, 지역대표, 풍수전문가 등 18명으로 이뤄진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포복산과 구 족구장 부지 등 이전에 후보지였던 11개 지역에 대한 답사와 여건 변화 등을 분석했다. 최종 3곳으로 압축된 3곳 중에

무실동 포복산지구가 포함되었는데, 이 지역이 도농통합 전 원주시의 중앙에 있어 원주시가 인구 50만 명의 광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받았고, 인근 지역에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데다 남원주역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역세권 개발 등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단계동에서 무실택지를 통과하는 원주 남북 간 도시계획도로가 포복산지구 서쪽으로 통과해 동서가, 남북 간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었다. 시청사 건립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공청회 참석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25개 읍면동에서 전화번호부를 활용,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선발했으며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참석했다. 이후 압축된 후보지 이외에도 무실동 만대지구가 추가되면서 갑작스러운 후보지 선정에 대한 혼란과 논란도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무실동 만대지구가 이전 지역으로 확정되었고 2004년 10월 12일 기공식에서 서울 동방풍수과학연구원 이주한 원장은 당시 본인도 1년에 한두 곳 이상 보기 어려운 대명당이라고 말했다.

시청사 부지의 좌청룡 쪽으로는 잠룡입수, 우백호로는 포복산에서 들어오는 재물을 모은다는 황룡입수이며, 오행산중 주산이 인재를 배출한다는 수형산의 형국이다. 특히 좌청룡과 우백호의 변화무쌍함은 생동하는 새로운 원주시의 변화를 예고하며, 외청룡에 있는 치악산은 시청사를 전호하여 훗날 뛰어난 인물의 양산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봉화산에 첩탑 하나 놓여 있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이며 시청사가 건립되면 포복산 안 시청사로 인해 그 위세를 더욱 떨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풍수 전문가 발표에 대해 첨단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던 만큼 청사 이전지 확정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례이기도 했다. 2007년 일산동의 시청사가 무실동으로 이전되었다.

기공식은 2004년 10월 12일 오후 2시 시청사 신축 현장에서 열렸으며 김진선 도지사, 김기열 시장을 비롯해 1400여 명이 참석했다. 시공사는 코오롱건설, 매일종합건설, 반야건설, 우영종합건설이었으며 유탑엔지니어링, 무영종합건축이 감리했다.

준공식은 2007년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사 광장과 백운아트홀에서 주요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시청 이사에 필요한 문서 상자만 해도 3만7천 개(70cm×50cm) 정도였으며 집기 구입과 장비 이전 비용만 40억 원이 넘게 들었으며 지능형 빌딩 시스템(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이 적용돼 건물 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을 도입했다. 백운아트홀은 1층 705석, 2층 284석에다 별도의 오케스트라 피트 40석 등 최상의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공연장이다.

시청사 바로 앞 2만여㎡에 조성된 근린공원에는 구상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의 상록수 362주와 감나무, 느티나무,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뽕나무, 살구나무 등의 낙엽수 1,007그루, 회양목, 눈주목 등의 관목 42,176그루, 원주시목인 은행나무 77그루 등

총 50종 43,622그루의 나무와 식물이 심어졌다.

07/11/12 신청사 국기 게양 행사

07/11/21 신청사 준공식

원주시청 이전 일지

- 95/12/07~10/16 시청사 이전 위치선정 연구 용역(강원개발연구원, 2,500만 원)
- 96/01/12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 96/02/26 청사이전 위치선정 용역 결과 납품(1순위: 무실동 포복산 일원, 2순위: 단계동 백간마을, 3순위: 반곡동 종축장 부지, 4순위: 학성동 정지들)
- 96/01/18~04/19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4회)
- 96/05/17 시민공청회 개최
- 96/08/14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5차 회의 후보지 압축을 위한 투표
- 97/01/0 시청사 건립 위치 의견 청취
- 97/04/03 건축 현상설계 공모
- 98/07/13 (주)대우건설에서 사업 시행 시기 연기 통보
- 98/09/12 LG건설과 협의
- 98/12/19 프랑스 알메디그룹과 협의
- 00/12/20 시청사 신축 논의 계류
- 03/03/11 신청사 이전후보지 무실동 만대지구로 최종 결정
- 04/07/21 신청사 토목·건축 분야 입찰공고
- 04/08/26 코오롱건설(주) 무실동 신청사 시공업체로 결정
- 04/10/12 시청사 기공식
- 05/06/29 신청사, 친환경 건물 인증 추진
- 05/12/10 시청사 신축 상량식
- 07/06/12 신청사 사무가구 품평회
- 07/10/01 신청사 주소 무실동 1번지로 확정
- 07/10/20 신청사 이사 시작



원주시청 부지



시청 공사 중



원주시청

전쟁으로 부모 잃은 아이 돌보던 심향영육아원



심향영육아원은 1953년 7월 21일 이재춘 초대원장이 무실동에 설립한 아동보호시설이다.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이재춘 원장님이 창립한 심향영육아원에 대해 알고 있고, 지금은 부속 건물이 많이 없어졌지만 어려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전쟁 후에 오갈 곳 없는 어린이들만 수용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는 5~6살 되는 아이들부터 20대, 30대, 40대 어른들로 있었다. 그때는 미국에서 안 도와주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아동복지재단 같은 곳에서 도와줘서 운영이 가능했던 것 같다.

70년대만 해도 이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저마다 먹고살기 바쁠 때였다. 운동장 터에 직접 가니 축구 골대가 있던 자리가 바로 생각난다. 여기서 공차고 야구 경기를 했다. 옛날에 원생

날 짜 2020년 11월 2일 오후 3시

장 소 옛 심향영육아원 터

질문자 서정덕·이태균·최형순 위원

답변자 차영환 위원

.

무실동 주민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의미 있는 장소로 선택된 곳이다. 1953년 전쟁고아 240명을 보호하기 시작해 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 온 심향영육아원. 1986년에 이전하여 현재 호저면에 있다. 원주 허브팜 근처에 아직도 최초 심향영육아원의 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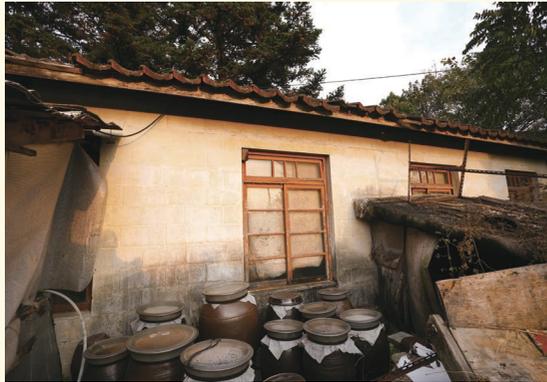
이 많을 때는 240명 정도 있었다고 나온다. 팻말이 아직도 남아 있다. 돌아가면서 보니 터가 꽤 넓게 지금도 남아 있었다. 어려서 미군이 들어오면은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 강당에서 주민들도 같이 다 모여서 영화를 봤다. 동네에서도 장갑이나 양말 같은 걸 선물로 나눠 주기도 했다. 최형순 통장님도 여기 아래에 있는 마을에 살면서 흥업국민학교에 다녔는데 우리 동창들도 여기 원생들이 많았다.

동창 모임을 하면 지금도 만나고 체육대회 때도 만난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수용소가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인민군 중에 남으로 전향한 사람들,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서곡까지 1통, 2통, 3통, 4통, 5통이라고 수용소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육아원이 생긴 것 같다. 여기는 갈 곳 없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섞여 있었다. 여기서 미국에서 원조 들어오면 국내 원조와 합쳐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만 잘하면 다 보내줬다. 근데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 공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심향영육아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진 역사가 깊은 곳이다.

초대에는 형제가 같이 운영했다. 이 일대 지금은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조경이 원주에서 가장 잘되어 있던 곳이다. 지금은 나무가 우거져 있지만, 여전히 조경수로 사용했던 곧게 뻗은 나무들이 남아 있다. 당시에 조성됐던 원형 화단은 지금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차들이 이 원형 화단을 중심으로 들어와서 돌아 나

갔던 곳이다. 지금은 건물 중에 강당 하나가 남아 있다. 어려서는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다. 강당에서 영화 보고 위문공연이 오면 공연도 보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허름하지만, 옛날엔 규모도 크고 좋은 시설이었다. 강당 안에는 작게 무대도 있고 방송실, 대기실 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강당 뒤편으로는 자체 이발소, 목욕탕, 식당이 있었다.

그때 마을에 이발소 하던 형이 와서 이발해주거나 이발소에 있는 기계로 머리를 깎아줬다. 마룻바닥도 나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거다. 마룻바닥을 기름칠해서 문질렀던 기억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오래 보존된 게 아닐까. 많은 분들은 무실동에 심향영육아원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데 기록할 가치가 있다. 세월 속으로 묻히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 다행이다. 강당은 미군 부대에서 쓰던 그런 블록으로 지어졌다. 한쪽에는 방이 10개 정도 됐고 여자, 남자 나눠서 있었다. 근처에는 초대 원장이 살았던 집도 있었다고 한다. 최근에도 다른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데 현재는 비어 있다. 이재선 씨의 형인 이재춘 씨가 살았던 집도 있다. 문짝 같은 것들이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집 내부의 나무 기둥에도 옛날 건축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자리도 조만간에 개발된다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흔적도 사라지게 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1953년 건립된 심향영육아원



40년 역사 함께한 원주교도소



원주교도소는 복숭아 과수원을 했던 구릉지대를 메꿔서 만들었다. 만대골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이다. 교도소가 생긴 지 4~5년 정도 됐을 때는 무실동 주민을 초청해서 교도소 참관제도에 따라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다 공개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수용자들이 형을 확정받으면 강제노역을 받았는데 수용자의 급에 따라 2급 이상의 모범수를 선별해서 일을 나갔다. 대민지원도 나갔다. 수용자들의 인권도 중시되면서 대민지원은 사라졌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더 인간적이었다. 수용자와 교도관 관계가 관리자와 관리받는 사이지만 지금보다는 정이 많았다.

교도소에는 생활하는 공간과 나가서 활동하는 작업장이 있다.

날 짜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무실동 커피베이

질문자 서정덕 위원

답변자 원봉재, 이용우

원주교도소는 현재 이전을 앞두고 있다.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두고 싶었던 무실동의 대표 공간이다. 과거 무실동은 개발이 늦은 외곽 지역이라 교도소 부지로 선정이 되었다. 교도소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자 봉사, 기부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을 이어 왔다. 교도소 내에서는 직업훈련, 인성교육,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신뢰받는 교정행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왔다. 원봉재씨는 1980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이용우씨는 1983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원주교도소에서 근무했다.



나가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작업장에 보내서 일을 시킨다.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듯이 자고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는 반복되는 생활을 한다.

교도소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체 생산하는 작업을 한다. 직원복이나 신발 같은 것들은 사는 것보다 단가도 낮은 장점이 있고, 수용자들에게 노임으로 주기도 한다. 직업교육을 따로 진행하기도 한다. 미장, 옷 만드는 재봉, 벽돌 쌓는 것, 원예, 농사, 가구 제작 등의 훈련을 하는 곳이다. 직업훈련생으로 기술을 연마해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원주교도소 수감자 중에서는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도 있다.

원주교도소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다양한 활동도 전개했다. 교도소에서 국화를 전시하기도 하고 출소자나 보호 관찰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려는 일자리 지원이나 상담도 교도소에서 진행하는 일이다.

지금은 예전과 비교해 수용인원이 많이 적어졌다. 1,000명 넘는 인원에서 지금은 7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교도소가 들어설 때만 해도 인권 의식이 미약했다고 한다. 알고 있었지만 크게 인식을 못 했고 좁은 방에 4~5명이 들어가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다.

80년대 교도소는 냉난방은 물론 교도소에 책정되는 부식값도 상당히 열악했다. 콩, 보리, 쌀 비율 섞는 건 영양 관계상 보충하려고 먹었다. 재소자들뿐 아니라 교도관의 처우도 열악했다. 월

급이 10만 원 안쪽이었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연탄 하나 피우며 근무했다. 담요를 덮고 옷을 꺼입고 그렇게 생활했다.

옛날에는 화장실도 재래식이었는데 15년 전쯤 싱크대, 개별난방, 자동화 시스템 등이 도입됐다. 지금 교도소의 가장 큰 변화는 시설의 변화다. 사회 삶의 질이 좋아진 만큼 재소자들의 생활도 좋아졌다. 그러나 수용자의 죄질은 더 악해졌다. 지금은 사람들이 더 교활해지고 사람을 믿지 못한다. 시대가 변할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는 더 낮아지고, 죄질은 더 난폭해졌다.

원주교도소로 인해 주변 개발이 늦어져 원주시청이 이전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옛날 교도소의 모습과 사람들의 인식, 생활상을 이야기로 남길 수 있었다.



왼쪽부터 서정덕 위원, 원봉재씨, 이용우씨

원주교도소 국화전시회 연혁

가. 국화 재배 경과

- 1987년부터 수형자 심성순화 및 수용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국화재배 시작
- 1989년 원예종묘 기능사 과정(15명) 원예 직업훈련 시작
- 1991년 화훼재배 기능사 과정(15명) 신설
- 1992년부터 전국 교정기관 국화품평회에 출품, 매년 입상(최우수 9회, 우수 6회)
- 2001년도 제1회 국화전시회 개최
- 2002년도 제2회 국화전시회 교정의날 행사
- 2003년도 제3회 국화전시회 개최
- 2004년도 제4회 국화전시회 개최
- 2005년도 제5회 국화전시회 개최
- 2006년도 원예 숙련과정(12명) 신설
- 2006년도 제6회 국화전시회 개최
- 2007년도 제7회 국화전시회 개최
- 2008년도 제8회 국화전시회 개최
- 2010년도 제9회 국화·시화전 개최
- 2011년도 제10회 국화·시화전 개최
- 2012년도 제11회 국화·시화전 개최
- 2014년도 제12회 국화·시화전 개최
- 2015년도 제13회 국화전시회 개최
- 2016년도 제14회 국화전시회 개최
- 2017년도 제15회 국화전시회 개최
- 2018년도 제16회 국화전시회 개최

- 2019년도 개청 40주년 기념 국화전시회 개최

나. 국화 재배 과정

- 1991년도 원예직업훈련교사 1명 임용, 원예직업 훈련생 30명 원예 이론 및 실기 기술지도에 따른 기능사 자격취득 과정에서 실기교육으로 국화를 선정 재배
- 재배 방법상 특이점
 - 매년 11월경 동지삭을 채취, 삼목하여 뿌리가 나오면 작은 화분에 이식
 - 국화의 성장속도에 따라 점차 큰 화분으로 옮겨 심으면서 겨울동안 전등, 난로 등을 이용, 일조량 및 온도를 조절하여 꽃이 피지 않도록 억제관리
 - 매년 8월경 본 화분에 옮겨 심은 후 순자르기摘芯, 가지유인, 꽃눈따기摘蕾, 가지 묵기, 영양제 살포 등 총 54회 정도의 각고 끝에 탐스럽고 고귀한 자태의 국화가 피어남

※ 재배기술 내용: 동지삭 나누기分株 1회, 분갈이 6회, 순따주기摘芯 10회, 꽃눈따기摘蕾 3회, 유인 및 지주대결속 3회, 꽃받침摘蕾결속 1회, 영양제 등 액비시비 48회, 병충해방제 25회

※ 국화전시회 동안 수용자들이 정서함양 및 심성순화 목적으로 평소에 개인별 습작된 시화를 전시장 한곳에 전시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수용자의 생활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소나마 수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1979년 원주교도소(교도의 마을) 개소



2015. 9. 22. 원주의료원 원격진료 협약 및 개통



자연보호 캠페인(외부정문 앞)



잣나무 묘목을 묘포장에 심는 모습



2019. 11. 28. 육민관 중학교 찾아가는 보라미 준비교실



식목일 맞이 교도소 주변에 나무를 심는 직원들



2015 국화전시회



2016 국화전시회



식목일 행사



원주교도소 전경



원주교도소 정문

무실동 합포원마을 둔전길에는 세종원이라는 곳이 있다. 공원이 아니라 개인의 집 마당이다. 무실동 1475번지 세종대왕을 모시는 곳이 바로 '세종원'이다. 무실동 주민 이시화씨가 다양한 종류의 조형물들을 본인 소유의 땅에 전시해 놓은 곳이다.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는 세종대왕님을 모신 곳이라고 쓰인 커다란 비석이 세워져 있다. 집 마당에는 세종대왕을 비롯해 이순신, 신사임당, 유관순 열사 등의 동상과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다. 이시화씨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가 작은 것이 한이 되어 강한 민족이 되어 남의 나라가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난 날이 없었고, 우리 민족이 거의 다 신앙 믿고 살아가는데 모두 다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신앙을 믿으니 우리 종교를 만들어 신앙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해 강한 민족이 되게 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백성을 아낀 세종대왕님의 뜻을 기려 온 겨레가 마음에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모시고자 했다고 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세종대도회'다. 세종대왕님이 세상에 살아 계



실 적에 만백성을 어찌하면 잘 살도록 해 줄까 하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합쳐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공간을 조성하게 된 계기로 윤리와 도덕, 정의 사회가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두고만 볼 수 없어 바로잡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 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세종대왕님을 모시는 곳이고, 둘째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장이고 셋째는 야외 교육장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했다. 비석에는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과 우리나라의 노래, 소는 논밭을 간다 등의 다양한 문구들이 적혀 있다. 한쪽에

는 세종대왕과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선생을 모신 '대성왕보궁'이라는 사당이 있다.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해 세종대도회를 만들기 전까지 농사를 지으며 정미소를 운영했다는 이시화 씨는 살면서 하고자 하는 뜻은 다 이뤘지만 어릴 적부터 간직했던 큰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뜻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말을 남기며 세종대도회를 완성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이제 세종대도회는 무실동의 알려진 명소가 되었다.



무실동은 1990년대 말 정부의 과소동 통폐합 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이 4개 통, 인구 1천500명 미만의 소규모 동이기 때문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단계동 이화마을과 코오롱아파트 지역을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통폐합 위기를 모면했다. 1978년 원주교도소가 개소한 이후에도 무실동은 야산으로 덮인 원주 외곽의 촌이었다. 배, 복숭아 과수원이 많았던 마을은 1995년 무실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또 1998년 무실2·3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로 확정되면서 현재의 무실동 모습을 갖추게 됐다.



무실1 택지지구 개발은 1995년부터 시작됐다. 1997년 코오롱 아파트 503세대가 처음 들어섰으며 1999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4천422세대, 1만5천여 명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

무실2 택지지구 개발은 1998년 5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며 본격화됐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가 구곡단관지구에 7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많은 누수가 발생해 늦어졌다.

2003년 7월 9일 무실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80만6천여 m²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한국토지공사는 현장 조사를 거쳐 8월 지장물조사, 9월 보상협의, 10월 감정평가 등을 거친다고 밝혔으나 주민 보상 등이 늦어져 본격적인 착공은 2007년 7월경부터 시작됐다.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5년 동안 본격적인 개발이 미뤄져서 주민들이 농업과 관련

된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었다. 한국토지공사는 ‘자연과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무실2지구의 개발 목표를 새로운 웰빙 지구-화락 상생으로 삼아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공원의 조망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구 안에 소규모 우수지를 매몰하지 않고 친환경적 공원으로 조성하며 원주시 새로운 중심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무실3지구 택지개발은 1998년부터 추진됐으며 2002년 문화재지표조사를 거쳐 2003년 3차례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등을 통해 2004년 12월 말 강원도로부터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48만 9천여 m²로 만대지구에 들어서는 신청사 입구, 49만 4천 3m²(15만여 평)로 들어서는 공동주택 용지 4개 필지 13만 4천854m²를 비롯해 단독주택 용지 63필지 1만 5천705m²가 조성될 예정이며, 상가 입주가 가능한 준주거 용지는 6만 5천m²이다. 이후 이 지역은 남원주IC가 근접한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원주시청이나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서 도심지와 접근이 쉬워 상업업무시설 및 공공시설의 접근이 편리해 택지개발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2007년에는 주민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착공에 들어갔다. 무실동 지역 내 주민들의 불만도 있었다. 원주시청사 신축과 무실 1.2지구 택지조성, 남원주역사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살던 주민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는 문제와 무실동 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발생하고 있는 빈부격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지 공사는 무실택지 2지구에 총사업비 2395억 원을 투입해 수용인구 1만599명의 3,14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개발했다.

이마트 원주점 뒤편에 조성되는 남원주역세권(투자 선도지구) 개발사업은 2015년 4월 9일 원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개발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면적은 46만8,787m²이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 절차를 거쳐 2017년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 교육,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21년 원주역도 이전한다. 원주교육청은 무실지구중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달 말 원주시 무실동 903-2일대 3만784.43m²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초등학교 조성 예정지는 남원주역세권 내 교육시설 용지다. 남원주역세권과 무실지구에는 12개 아파트단지, 7,32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아파트 부지조성시기는 2023년까지, 입주예정시기는 2025년으로 추정되는 만큼 원주교육지원청은 이에 맞춰 학교 설립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신설 방안과 더불어 기존 학교를 이전·개교하는 방안과 확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무실2지구]

- 1998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3년 4월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2003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무실경로당)
- 2004년 4월 실시계획 승인
- 2004년 7월 보상착수
- 2005년 3월 조성공사 착수
- 2007년 8월 조성공사 준공
- 2008년 12월 사업준공



1996년 무실동 대성고등학교 옆

[무실3지구]

- 1998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3년 10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2005년 7월 택지조성 착공
- 2006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07년 9월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08년 9월 택지조성 준공
- 2008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08년 12월 사업준공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사업]

- 2016년 12월 투자 선도지구 지정 승인(국토교통부)
- 201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강원도) 및 보상 착수
- 2017년 12월 착공(시공업체 선정)(2018. 12. 본 착공)
- 2019년 2월 수용 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2021년 12월 준공



남원주역세권

원주 최초 대형할인매장 이마트 원주점 개점

이마트 원주점이 문을 연 곳은 과수원이었다. 배·복숭아밭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땅값도 싼다. 주민들은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는 줄 알았다. 이마트 원주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여기서 무슨 장사가 될까'라며 고개를 가우뚱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마트 원주점이 문을 열자 여주, 이천, 제천 등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쇼핑을 왔다. 이촌과 행가리에 사는 주민들은 시내를 나가려면 이마트 앞쪽이 길이 워낙 밀려 흥업을 지나 남송 쪽으로 돌아다녀야 했다.



1999년 3월 20일 이마트 원주점이 개점하자 약 4km 떨어진 우산동 우산 철교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났다. 이마트 원주점 개점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이미 1,000여 명의 고객들이 찾았으며 하루 동안 매장을 찾은 방문객이 1만5,000여 명에 매출액은 2억5,000여만 원이라고 한다.

이마트 원주점이 원주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게 되면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 도소매업까지 여파가 미쳐 지역상권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마트 원주점 개점을 두고 지역주민과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정당인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등 각종 마찰도 많았다.

개점을 앞두고 운수업계는 이마트 원주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

스 과다 운영을 두고 마찰이 있었다. 운송업체는 이마트 원주점이 원주와 문막, 횡성 등 모두 14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이미 업체와 계약을 했다.

그러나 1999년 3월 6일 동신운수, 태창운수 등 시내버스 업체 노조 대표, 개인택시 원주시지부, 원주모범택시운전자회 등은 셔틀버스 운행 과다 운영을 강력하게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3월 8일 한상철 시장과 면담을 하고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또 남부시장 번영회도 이날 자체적인 대책 회의를 갖고 자구책 마련과 주차장 조성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키로 했다.

이마트 원주점 인근에 있는 이촌마을의 경우 대형할인매장에서



이마트 원주점

사용하는 물이 많아 지하수가 고갈돼 5세대가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도 발생했다. 1999년 1월 이마트 원주점에서 하루 120t 용출 규모의 100m 깊이의 대형관정 2개를 개발해 지하수 고갈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3월 11일에는 국민회의원주갑지구당도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활성화방안을 논의했으며 같은 달 중순에는 교수, 상공인, 운수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마트 원주점에 개점에 대해서는 인근 충북 제천시 상인들도 반대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셔틀버스를 제천시까지 운행하는 것은 지역 상권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원주시에 대안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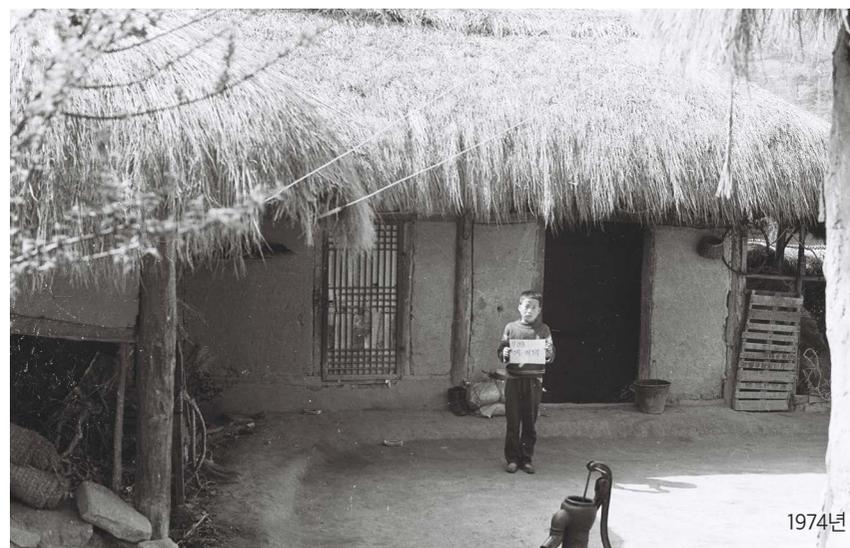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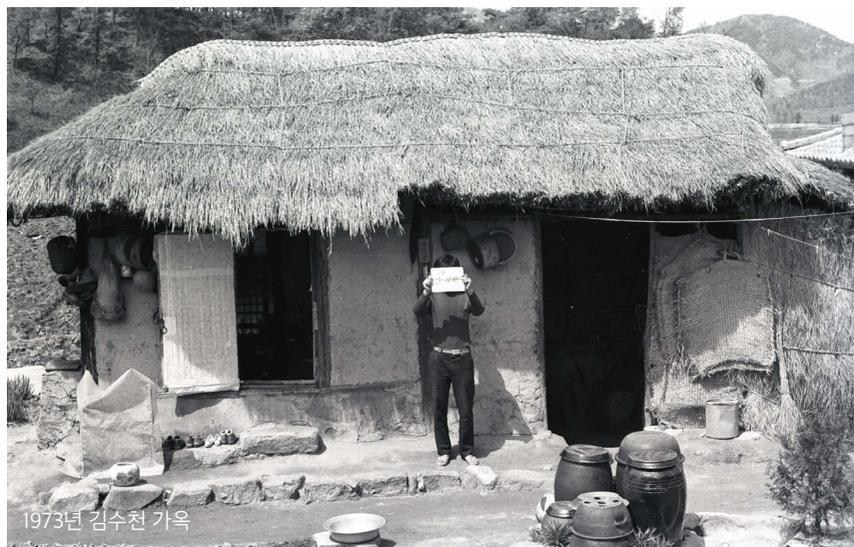
지역사회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이마트 원주점은 1999년 3월 20일 개점했다.

이마트 원주점은 부지 9,500여㎡(2,700평), 지상 2층, 지하 2층, 주차장 449대 규모로 신축했다.



추억의 무실동





1970년대



1977년 양지마을 느티나무 진입로



1978년 무실동추공아파트 건립 전 모습

1980년대



1986년 무실동 진입로 포장공사 준공



- ① 1996년 농산물도매시장
- ② 1999년 단계-무실간 도로 개설
- ③ 1996년 무실동(흥업리)
- ④ 1996년 무실동 대성고 옆



1990년대

1999년 하늘에서 본 무실동



2000년대

2004년 원주시청 건립 부지



2006년 삼육학원



2006년 무실동



2006년 5월 무신택지 개발 전



원주시청

2003년 원주시청 이전 부지가 무실동 만대마을로 최종 결정된 이후 2004년 기공식을 하기 전 모습과 16년 뒤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다. 오른쪽 끝에 대한예수교침례회 원주교회가 그대로 있다.

2004년



2004년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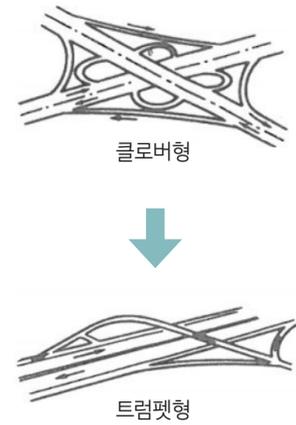
2020년



남원주나들목

1989년 공사를 시작해 1994년 12월 완공된 남원주 나들목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만중 구간 개통과 함께 개통했다. 폐쇄형 IC로 7개의 톨게이트가 있었는데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지자 1997년부터 120억 원을 들여 이전 공사를 시작해 700여m 떨어진 지니기길 35 (무실동 708-5)로 2001년 8월에 이전했다. 나들목은 클로버형, 다이아몬드형, 트럼펫형이 있는데 남원주 나들목은 처음에는 클로버형이었으나 트럼펫형으로 바뀌었다.

2004년



2020년



무실동 전경

논밭이었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 택지 개발로 신도시가 됐다. 무실동은 배·복숭아 과수원과 산이 많았던 곳에서 행정중심 타운으로 변했다. 1999년과 2020년 무실동 모습을 비교해 봤다.



1999년



2020년



단계-무실간 도로 개설

원주웨딩홀, 삼천감리교회가 있는 자리다. 왼쪽에 있는 산이 현재 AK백화점이 있는 곳이다.



2020년

1999년



무실동 마을기록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12월 말까지 20여 회 이상 만나며 마을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를 고민했다. 모든 콘텐츠는 기록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됐다. 마을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무실동마을기록은 이제 시작이다.



이태균

무실동마을기록위원장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올해 할 수 있어 정말 기뻐다. 잊고 있었던 추억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 좋았다. 위원들과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었다. 위원들 모두 자기 역할을 잘해 줘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었다. 주민들과 위원들에게 배운 게 많다. 심향영육아원을 보게 된 게 가장 보람됐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록을 습관화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다.

원주토박이인 내 기억에 무실동은 무척 시골이었다. 대성고등학교에서 2005년부터 근무하고 있고, 무실동에서 살고 있는데도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번 기록은 무실동을 제대로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 위원들과 마을을 다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마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김현숙

위원들이 각자 역할을 잘 해줘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하게 됐다. 기록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게 많다. 정말 보람 있었다. 이 마을에 살게 될 후손에게 마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앞으로도 계속 기록을 해 놓아야겠다. 기록의 소중함을 배운 시간이었다.



서정덕



신주원

무실동이 고향이 아니어서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기록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배웠다. 위원들 모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고맙다. 책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 계속했으면 좋겠다. 5년에 한 번씩이라도 기록 집을 제작하면 어떨까 싶다. 마을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실동 기록 모임은 옛 사진을 보는 느낌이었다.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모임하고 집에 오면 한참동안 추억을 되새기곤 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무실동 이야기를 찾아내면 좋을 것 같다. 무실동을 알고 싶은 누구에게나 읽힐 수 있는 책이길 바란다. 인근 지역까지 같이 담아 보고 싶다.



우순자



무실동마을기록위원회



윤 일 호

1996년에 원주로 왔는데, 과수원이 많았고 나물을 뜯던 추억이 있다. 택지가 개발되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무실동의 역사를 책으로 남기게 돼 기쁘다. 무실동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했다.

마을을 기록하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지만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여러 사람도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무실동에 대해 잘 몰랐는데 마을의 역사를 새롭게 많이 알게 됐다.



윤 창 희

잇힌 동네 이야기를 다시 찾아내면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후대에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았는데 발품을 팔고 연구도 하다 보니 어려워도 나중에 정말 좋은 자료로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영 환

어려서부터 살아서 고향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옛 기억을 되짚을 때마다 기쁘기도 했지만, 택지개발로 정겨운 마을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기도 했다.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되면서 또 하나의 마을이 사라졌는데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며 마지막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먹먹했다. 하지만 무실동마을기록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최 형 순



무실동 마을기록모임

5월12일	마을기록 사업 소개 및 주요 일정 논의	10월22일	마을 기록 콘텐츠 정리
5월21일	마을기록의 의미, 마을기록 콘텐츠 논의	10월26일	마을 사진 촬영
5월28일	'마을기록 사례' 강의 수강	10월30일	무실초등학교 교육
6월11일	마을기록 콘텐츠 논의	11월2일	마을기록위원회 영상촬영
6월25일	마을기록 콘텐츠 논의	11월3일	채병두 전 시의원 이명숙·박성근 전 동장 인터뷰
6월30일	송삼마을 인터뷰	11월13일	사진전 준비
7월 3일	본동 인터뷰	11월21일	드론 촬영
7월7일	원제하 할머니 인터뷰	11월26일	강원교통방송 105.9 라디오 인터뷰
7월9일	마을지도 논의	11월18일	'무실을 담다' 사진전
7월21일	무실3~4동 인터뷰	12월10일	목차 확정, 사진 선정
7월23일	편집 방향 및 목차 확정	12월24일	편집 회의
8월11일	원주교도소 전 교도관 인터뷰		



함께한 사람

강지연	고성웅	고성철
김경미	김나연	김성준
김태식	김태용	김태현
김현숙	남기섭	남한나
류성선	류재원	문선미
민병인	박금석	박성근
박용식	박유진	박주환
박지훈	박진아	박화영
백경기	백인성	서교하
서병기	서정덕	서정호
신재용	신주원	심인숙
심혜련	안윤아	안황금



오성웅	우순자	원대연
원봉재	원상호	원용호
원제하	원팽식	유지효
윤일호	윤창희	이금화
이명숙	이성재	이수민
이수진	이용우	이유민
이윤정	이주안	이채민
이태균	장미진	장정현
전보경	정의돈	조경준
차영환	채병두	천병훈
최연희	최영자	최정숙
최지은	최형순	최혜인
한혜원	홍성하	홍우봉





무실동 마을 기록은 이제 시작입니다.